



성도의 빛 3  
1972

# 영감의 메시지

제임스 에이 칼리모어  
십이사도 보조



● 얼마 전에 친구 하나가 그가 겪은 재미있는 일을 들려준 일이 있다. 그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학교 교장을 지낸 사람이다. 하루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을 둘러 보다가 어떤 교실엔 들리게 되었다. 마침 그 반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감사의 상징이 될 그림을 칠판에 그리라고 했었다. 학생들은 모두 열심히 그림을 그리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는 시작한 그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잘 몰라 애를 쓰고 있었다. 내 친구가 그 소녀에게로 다가가서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소녀는, “예,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면 되죠?”라고 물었다. 그녀는 산과 나무를 그려놓고 기도하는 소년의 그림을 그렸으나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몰라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친구는 즉시 그녀에게 하나님은 사람이었다고 일러 주었으며 인간과 흡사하고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사람들은 흔히 어느 나라의 백성이거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 까에 의혹을 갖는 것 같다. 이상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식자들에게 이상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념을 가르치며, 점점 더 인간을 혼란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의로운 사업과 의로운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을 그리던 소녀처럼 하나님의 모습에 자신이 없던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 어떻게 굳건해 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 17:3) 즉 하나님이 개체의 인격을 지니신 분임을 아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삶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는 뜻 깊은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 제 8 권 제 3 호 순 서 1972년 3월호

■ 대관장단 메시지 : 너희는 가르치라 해롤드 바이 리.....	1
훌륭한 교사라면 관심을 가져야 매리온 데이 행크스.....	4
무지의 값은 비싸다 하트만 렉터 2세.....	6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윌리엄 에이치 베넷.....	12
주님의 백성은 계시를 받는다 부르스 아아르 벵콩키.....	15
풍요의 율법 프랭크린 데이 리차즈.....	18
서부로 가다 매리 프렛 페리쉬.....	21
리하이.....	25
매드린의 꿈 .....	26
성신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가? 딜위스 에스 영.....	29
당면한 사회 문제를 대처해 나감 윌리엄 이 베넷 .....	33
유행과 신앙 페기 호킨스 .....	35
질의 응답 하워드 엠 바하르.....	39
단편 소설 :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매리 에크 노울스.....	42
■ 선교부장단 메시지 이 호남.....	47
■ 내외 소식.....	48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2년 3월 1일  
통권 제80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1권 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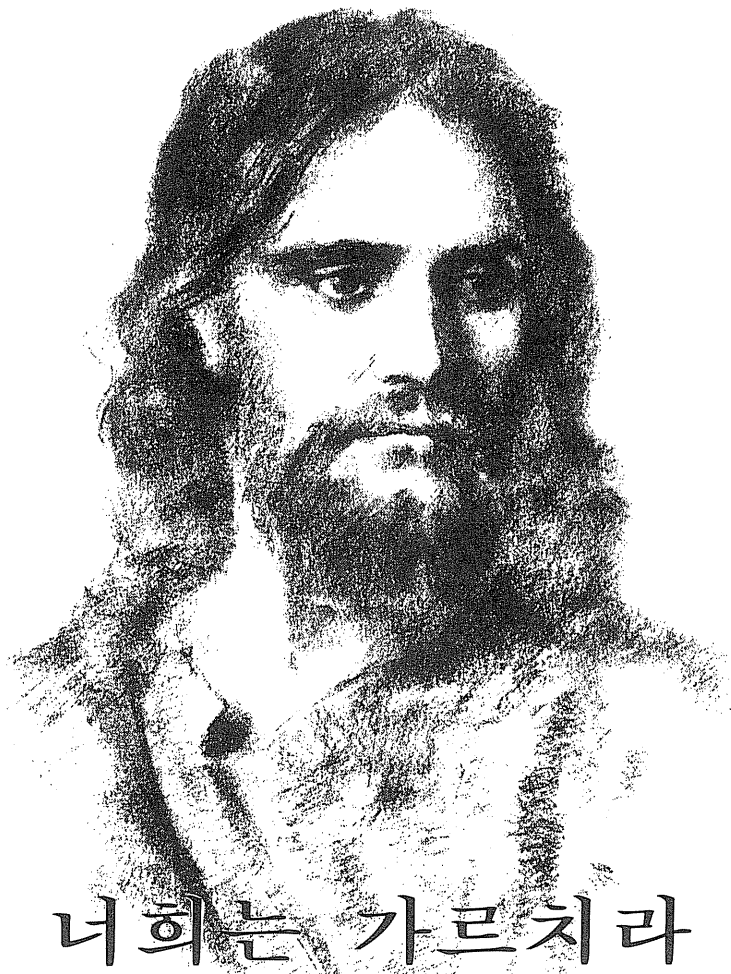
1년 (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설명 : 이달의 표지는 두 도적 사이에서 십가자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을 실었다. 이 일에 관한 경전의 기록은 뒷 표지에 소개되어 있다. (해리 앤더슨 그림)



# 너희는 가르치라

해럴드 비이라

● 몇해 전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고 루우벤 제이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모든 선생에게 아주 뜻깊은 말씀을 들려 주셨으며 젊은이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리고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저들에게 생명의 떡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들 젊은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저들은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행복을 보상으로 얻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교사가 될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또 그런 훈련이 강요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교사로

서의 준비를 갖추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율법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은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 (교성 42:14) 그렇다면 이 영을 어떻게 하면 교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7-8)

가르침을 얻고자 물려온 무리에게 구세주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해를 두고 나는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 영향력을 입었으며 몇몇 선생님들에게서 받은 감명은 내가 나이를 먹고 또 교사의 자리에 서야 하는 때에도 내게서 떠나지 않았읍니다. 그 훌륭한 교사 중의 한 분이 하워드 아아르 드릭씨로서 이분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인상 깊은 가르침을 남겨 놓으셨으며 이분은 세상의 으뜸가는 선생이신 구세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의 가르침을 통하여 몇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 구세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참 사랑을 가지셨다.
2.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불타는 신

님을 가지셨다.

3. 인간과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너무도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며 이를 동정하셨다.
4. 그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부지런한 학생이시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를 아셨다. 그는 지금의 세상과 세상의 여건을 알고 계셨다.
5. 그는 진리를 식별했으며 이를 지켜올리는데 인색하지 않으셨다.
6. 그의 간결한 언어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호감과 신뢰를 샀으며 이로써 상호 교통할 수 있었다.
7. 그의 독창적인 재능이 언제나 공과를 산 것으로 만들었다.
8.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에 목마르고 주리게 하였다.
9. 그는 선함으로 백성을 인도하시었고 봉사애 봉사를 더하기 위하여는 복음을 실제로 활용하겠다는 의욕을 가지셨다.
10. 그는 생활로 자기의 신앙을 모범이 되게 했으며 용감하게 복음의 뜻에 따라 사셨다.

조금 전에 교리와 성약에서 인용한 바 율법으로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교사나 지도자 혹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려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42 : 11)

여기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첫째는 부름과 합당한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한 성임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라는 계명입니다. 셋째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영으로만 얻어질 수 있고 임의로 배울 수 없는 나머지 여건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성 42 : 14)

다행스럽게도 나는 나의 가정에서 위대한 두 분의 선생을 영원한 삶의 동반자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서 나는 실제의 행함으로 전해 준 산 교훈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나는 교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배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분 교사는 침례를 받을 때 보혜사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들 두 분은 모두 권능있는 자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 교사의 머리 위에 손이 얹어졌고 교사로서의 성별의 의식이 집행되었으며 그 교사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열심으로 주께 간구한다면 필요로 하는 인내와 영감과 필요한 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이 영감에 찬 교사의 체험담에서 우리는 영감에 좇아 가르치는 교사가 성실하게 맡은 직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허가되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들이 기록한 “체험의 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의 한 선생님의 이야기

입니다. 이 분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어려서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사의 말씀 가운데 “열심으로 학업에 힘쓰라. 간절한 기도로 주께 구하면 그대가 이루는 일로 인하여 그대의 마음이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대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과 저들의 향상과 발전을 지켜보는 일로 커다란 기쁨을 얻게 되리라. 그대는 저들의 사랑을 얻으며 그대의 노력의 보상으로 큰 사랑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의 머리 위에 부여된 이 약속의 말씀은 그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녀는 인생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번 유혹이 그녀를 넘겨다 보았지만 그럴 때 그녀는 늘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 보았습니다. 그녀는 신뢰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자기가 알았던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하면서 한 제복의 젊은이는 그녀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알았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믿으셨어요.” 어려운 시련의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선생님은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낙담하면서 교실을 나왔습니다. 한 소년이 발걸음을 급히 서둘러 선생님 곁에 따라오면서 “저 오늘 오전 수업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손에 들고 가는 예쁘게 포장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에 눈을 주며 “저도 그런 책이 있으면 몇 번쯤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내 책을 좀 보겠니?” 책을 내어주며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예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

다.”

학생은 허둥지둥 그 책을 손에 받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감사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후에 선생님은 그 학생이 책도 별로 없고 벽에 그림조차 없는 녀석치 못한 대 가족의 출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 수록된 내용을 탐독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 주에 책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가지고 선생님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책을 완전히 정독하였고 조금도 책을 더럽히거나 손상하지 않고 선생님께로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그 학생을 믿었습니다.

내가 반려자로 했던 또한 분은 어렸을 때 약속받은 대로의 사명을 다 하였습니다. 그의 축복사의 축복 중에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대는 교회에서 봉사할 부름을 받을 것이며 그대에 결손에 결손을 다하여 그 부름에 응할지니라. 그 직책으로 인하여 그대가 기쁨을 얻으리니 이는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그대는 평화의 사자가 되어 여러 가정에 감사와 기쁨을 전하게 되리라. 그대는 병든 자에게 즐거움을 전하는 자요 죄로 방황하는 자의 짐을 덜어주는 자가 되리라. 그대의 음성 이 무거운 짐을 진 고달픈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줄 것이며 이로써 저들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리라.”

이 위대한 선생님은 젊은 숙녀로 성장하면서 그녀의 봉사의 작업을 교실 밖에까지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한 소녀의 암담한 비극을 빛나는 성공으로 전환시키도록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없이 살게 된

이 소녀의 진로를 인도해 주었고 마침내는 훌륭한 숙녀로 성장시켰으며 교회 안에서 좋은 배필도 구해 주어 신전 결혼 의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두고 나는 이런 글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닫혀진 여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는 다른 선생에게 이러한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재능도 겸비했다. 그녀가 아이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옆에서 듣노라면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된다. 그녀는 천성으로 재능과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는 법을 타고났다.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접근하려고 팔을 뻗치고 있었다.”

교실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참된 교사,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교사는 늘 교사로서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기를 주목하는 모든 학생의 훌륭한 교사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눈은 언제나 그녀의 움직임에서 가르침을 찾아냈습니다.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즉 “……금단의 열매를 짝함에 생명의 나무를 두시었고 하나는 달게 하시며 다른 것은 쓰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니파이이서 2:15-16)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나의 양을 먹이라.”(요 21:15)고 하신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교사로의 부름을 권능이 있는 자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교사들의 받은 축복이 풍성하리라고 하시며 클라크 부대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모두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교실에서 비롯한 사제간의 접촉이 점점 발전하여 마침내는 두터운 사제간의 정으로 발전합니다. 이 두터운 우정은 상호간의 사랑과 이해를 돈독히 하며 이들을 하나로 묶는 시초의 교량이었던 영광스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의 감사를 두텁게 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가르치라.”고 한 계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받게 되는 “풍성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계적인 연사 한 분이 최근 교사의 수고를 강조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사는 인간 조각가이며 살아있는 진흙을 다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개조가 손쉬우며 바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올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개조하겠다는 소망을 가지셨다면 인간의 마음을 먼저 바꾸는 작업을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칼 에스 윈터스 박사, 솔트레이크지 1971년 3월 24일자)

나는 교사 여러분이 자기 부름의 중요성만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인간의 마음을 바로 잡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허가받고 있다는 사실에 보다 경건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

# 훌륭한 교사라면 관심을 가져야

● 일부 교사들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복음 원리와 결부시켜서 설명할 길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이 두 가지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계속하여 성장하고 남에게 관심을 가지며 우리들 주변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남다르게 예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 교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양서나 신문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소개됩니다. 그것의 양서라면

매리온 디이 행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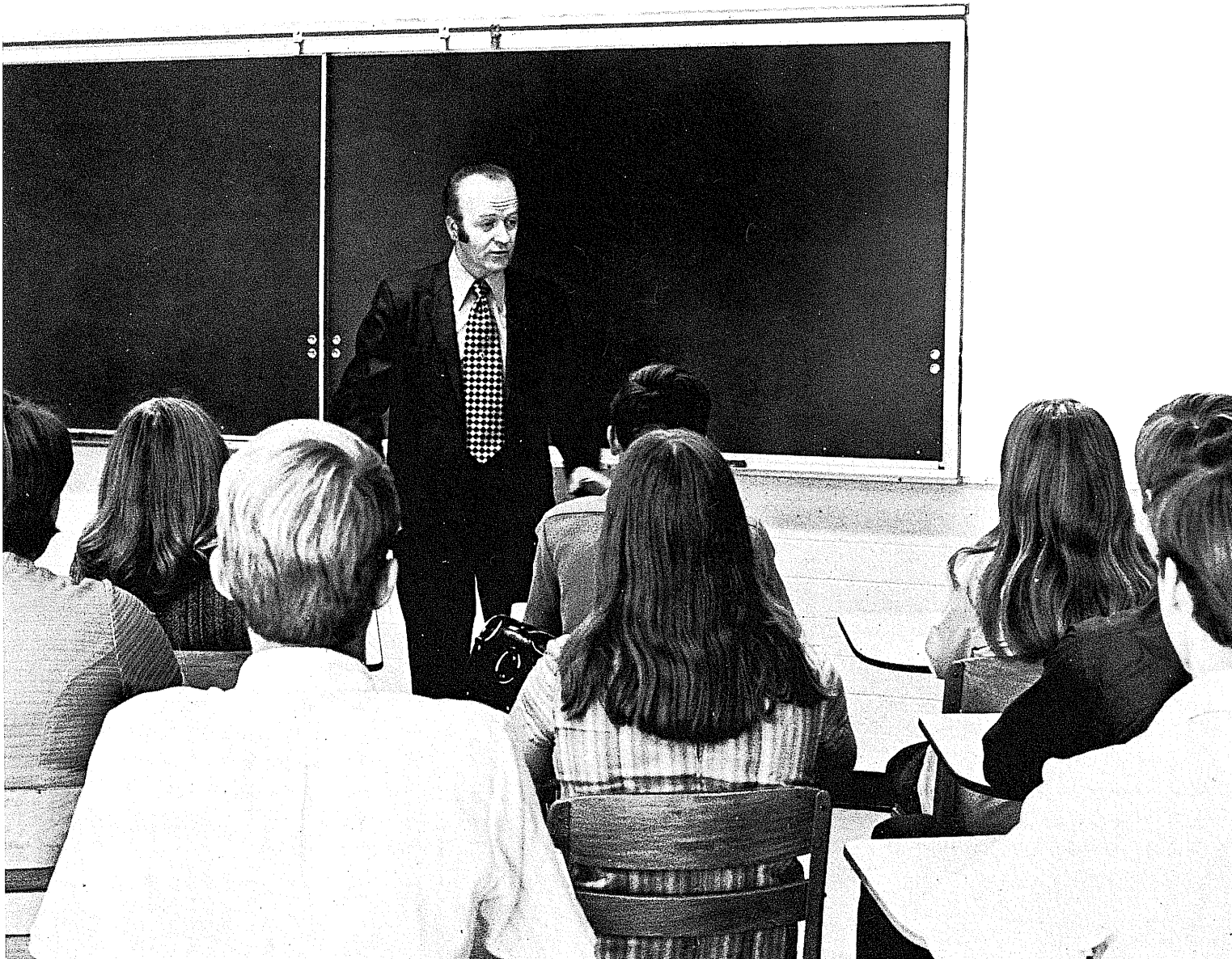
십이사도 보조

1970년에 세미나리 교사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하였음

거기에 소개되는 원리는 삶의 새로운 전진 방향을 소개해 줄 것이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기초 지식을 재강조, 강화해 줄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교사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왔으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여년 전에 에머슨<sup>1</sup>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위없는 귀한 성직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듯한 작위만 있을 뿐 엉터리 성직자가 득실거린다.” 에머슨이 꼭 누구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여러 각

1. 에머슨, 랄프 왈도(1803—1882) 미국 시인, 수필가.



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일에도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아니, 배울 준비하는데 필요한 댓가를 선선히 지불하겠다는 열의와 요구를 갖는다면 우리는 황금과 같은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사에는 여러 등급의 교사가 있습니다. 수세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세로<sup>2</sup>의 이야기를 듣고는 ‘참으로 달변이다’라고 하고 디모스테베스<sup>3</sup>가 이야기를 하면 ‘자 행진해 나가자!’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저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러스킨<sup>4</sup>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이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물론 교육이란 젊은이에게 편지 쓰는 법을 가르친다거나 숫자의 신비를 가르친 후 이로써 셈을 속이고 저질의 소설을 탐독케 하자는 게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육이란 마음과 몸을 늘 건전하게 지키게 하는 온전한 훈련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이란 친절과 권고와 보살핌과 훈계로 이루어야 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계속적인 작업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모범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데이비드 오우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참고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로 향하는 깨어남이며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시하는,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오직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선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선을 위하여 선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마음으로 믿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며 두려움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961년 8월호 인스트라터지 253면)

급속도로 변모해가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 문화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개발하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감화시켜야 할 책임을 바

로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계속할** 자기의 흥미를 어떻게 발견해 내며 적절한 자료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하는 방법이 자기는 결코 기회를 갖지 못했노라고 주장했던 별로 영특하지 못한 어느 노처녀의 이야기 속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유수한 자연주의자 루이스 아가시스 박사가 런던에서 강연을 끝냈을 때 그 노처녀는 아가시스 박사에게 정말 자기는 무엇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 박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러니까 전혀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독신으로 하숙을 경영하는 언니를 돕고 있어요.”

“무슨 직책을 가졌지요?”

“감자 껍질을 벗기고 양파를 썰어요.”

“그렇다면 아가씨 그런 일을 할 때 아가씨는 어디에 앉아서 일을 하나요?”

“부엌에서지요.”

“그 부엌 바닥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이 나는 벽돌로 되어 있어요.”

“윤이 나는 벽돌이 무어죠?”

“모릅니다.”

“그곳에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십 오년 입니다.”

“아가씨, 여기 내 명함이 있어요.” 아가시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윤이 나는 벽돌에 관한 편지를 내게 써 줄 수 있겠어요?”

그녀는 박사의 제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벽돌이란 것이 진흙으로 만들어 열로 처리한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토록 간단한 내용을 아가시스 박사께 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끝낸 다음에 도서관으로 가서 백과 사전을 꺼내 놓고 윤이 나는 벽돌에 관하여 조사를 해 보았더니 투화된 고령토와 수소를 포함한 알루미늄 규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호기심을 갖고 규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투화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먼저 조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하실의 심연으로부터 투화라고 하는 날개를 빌어 새 세상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소

2. 시세로, 마루쿠스 투리우스(106—43B.C.) 로마의 정치가, 웅변가

3. 디모스테베스(384—322 B.C.) 그리스의 웅변가, 정치 지도자

4. 러스킨, 존(1819—1900) 미술 평론가, 수필가, 사회 개량가

라는 뜻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질학에 관하여 조사를 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의 역사와 진흙층을 만들어 두신 역사를 공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오후에 시간을 내서 벽돌 공장을 찾아가서 120종이 넘는 벽돌의 역사를 공부했고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녀는 윤이 나는 벽돌과 타일에 관하여 삼십 육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가시스 박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친애하는 자매, 주제를 이토록 철저하게 다룬 논문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별표 표시를 해둔 단어 세계만 정정해서 돌려 보내 준다면 그대로 출판해서 그 출판 판매에서 얻어지는 돈을 보내겠습니다.”

얼마 후에 편지와 함께 돈 250불이 우송되어 왔고 편지 끝머리에는 “그 벽돌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아주 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간단하게 “개미”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박사는 “개미에 관하여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녀는 개미에 관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 팔백 내지는 이천 오백 종의 개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개미 중에는 아주 작은 놈도 있어서 세 마리의 머리를 한테 모이도록 해서 머리 편 위에 정렬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한 마리가 삼 센티나 되는 놈들이 질서 정연하게 반 마일쯤의 넓이로 군대처럼 행진하면서 앞에 닥치는 것을 모두 쳐치해 버리는 것도 있고, 눈이 먼 장님 개미도 있고, 죽는 날 오후에 날개를 갖게 되는 놈도 있고, 개미 집이 하도 작아서 여자들의 골무 하나로 다 덮어 버릴 수 있는 집을 갖는 놈도 있고, 젖소의 젖을 짜가지고 신선한 우유를 배달하는 개미, 또 그 우유를 받아 먹고 사는 귀족 개미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읽고 세밀한 관찰도 하고 또 몇 가지를 연구한 이 노처녀 아가씨는 아가시스 박사께 360페이지에 달하는 개미 조사서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박사는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여 출판료를 그녀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 돈으로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여러분은 윤이 나는 벽돌로 된 마루에—그 밑에는 개미가 있고—발을 딛고 서 있다고만 하겠습니까? 로드 체스터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흥미 진진하지 않

은 것이 없다. 다만 흥미를 갖지 못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끊임없이 탐구하도록 합시다.

**왜 쉬지 않고 배워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교육의 원리가 이를 필요로 하고 영원하고 생명의 철학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교육의 원리에 관한 정의를 좀 살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라고 시작되며 “진리는 그 자체가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유발한다”고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왜 배우느냐고요?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세상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세상은 쓸모있고 유익한 지식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 1600년에서 1900년 사이의 삼세기 동안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지난 6000년 동안의 모든 업적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발전과 변화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삼십년 내지 삼십 오년 이내에 지금까지의 모든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이 이루어져 인류의 생활은 크게 발전되고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1900년에 이 세상에 있었던 것보다 수백 배나 되는 새로운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기 2000년이 되면 지금보다 수천 배나 되는, 기록하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과학 기술을 다루는 정기 간행물만 칠만 오천 종이나 되며 무려 육십 오개 국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는 매년 이백만 개의 기사가 실리며 약 삼천 가지의 과학 기술 응용 방법으로 정리됩니다. 이만하면 여러분은 움직이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성도 중에 거짓 진리로 사람을 현혹케 하는 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무지한 자로서 게으르고 우둔한 것으로 인하여 지혜를 닦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읽고 탐구해야 하는데도 별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앓다가 이렇게 불치의 게으름을 얻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교만하고 자만에 빠진 자로서 자기의 편견대로 사물을 판단하는 사람이니, 이들은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스스로 자기의 율법이 되며 자기 행위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는 자들이니 이 부류의 사람은 먼젓번 부류보다 더 위험스럽고 또 무



지한 것입니다.

“게으르고 교만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런 자는 자기와 또 만인을 위해서 노란 경고의 깃발을 스스로 들고 있어야 마땅하며 이로써 감염되지 않은 자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복음 교리, 데저렛 출판사 1968년 발행 373페이지)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할 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며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배우나?**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평생을 가르치면서 얻은 경험의 이야기를 다섯 마디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적힌 영국 고서에서 기도에 관하여 내가 평소에 체험으로 습득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 실린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이 다섯 마디의 이야기를 학습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읽고 (2)듣고 (3)표시한다. (이 표시한다는 것을 나는 기록하고 오려 붙이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 대로 당장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어디서 읽었는지 조차 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영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혹은 종이를 찢을지도 모르고 기록한 위에다 물감 칠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읽다가 후에 다시 기억할 양으로 표시를 해 둔다거나 해도 잊던가 그 표시해 둔 것이 없어지기도 할 겁니다. 표시한다는 뜻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값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4)정리한다. (깊이 생각해서 자료를 한데 모은다. 자료를 정연하게 정렬한다. 후에 다시 재정렬할 경우에도 우선 정리하고 본다.) (5)소화한다. (나는 이 말을 활력을 얻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말하자면 피로를 씻어내고 원기를 북돋는)

**무엇을 배우나?** 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말해야 할 지식을 네 가지 분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소위 세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90편, 93편에도 적혀있는 역사, 다른 나라의 언어와 풍습 등에 관한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또 비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것 보다는 위에 언급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인간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지에는 물론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이웃과 사회 전체의 복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sup>1</sup>는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재

미있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사람의 속성에 따르면 인간 관계는 그 폭이 아주 작은 것 같다. 말하자면 그 관계란 것이 우선 자기 혈육에게 미치고 자기 가족 주변으로 확대된다. 나도 이를 경험했다. 이런 현상은 내가 일하던 병원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내가 보행할 수 있는 환자에게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를 위해서 수고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우선 그 침대에 누운 환자가 자기와 혈연 관계라도 있어야 움직이려 한다. 혈연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닙니다’라고 한다. 이런 때는 상을 준다던지 그야말로 위협을 해도 낯선 사람을 위한 수고는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새로운 인간 관계를 인식했을 때 모든 낯선 사람을 동등한 형제와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자기의 손길이 자기와 유대를 갖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 만으로 모든 인간 관계를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 살게 되었다고 하여 이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사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인간 관계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신사 한 분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즐기면서 여러 가지 음식도 서로 나누었고 남이 보기에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그 아이를 차의 뒷 자리에 누고 외투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훌륭한 교사였던 그 아빠는 이 날의 모든 체험을 아이들이 오래도록 잊지 않게 해 주려고 깨어있는 큰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오늘 뭐가 제일 좋았니? 네가 좋아한 것이……”하면서 그날 했던 일을 하나씩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질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잠이 들었어도 내게 아빠의 외투를 덮어 주셨어요?” 이야기를 끝내고 가르치기를 끝낸 후, 시간을 내어 사람에게 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물론 이야기도 해야 하겠지만—우선 들도록 합시다.

세번째 지식은 복음의 율법과 복음의 역사를 아는 것으로—이것은 구원의 지식이 되고 인생의 근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의 “지적

1. 슈바이처 (1875-1965) 불탄서 철인, 노벨 평화상 수상 (1952)

이고도 음악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거나 위대한 과학자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참으로 위대한 하늘의 지식을 다루는 분야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 지식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곧 하나님의 지식이요 창조와 인간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를 마땅히 가르쳐야 하며 가르쳐야 하는 그만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이런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나는 과학을 다루는 자세로 복음을 조심스럽고 또 철저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교회 서적을 구해다가 매일 틈틈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복음의 지식을 길렀습니다. 나는 이 지식을 나날의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그의 연구의 방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했던가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가 과학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복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네번째 과제는, 즉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시키고 연마해야 할 분야는 젊은이로 하여금 위대한 복음의 원리를 건강하고 의욕적이고 영감적인 방향으로 실생활에 응용하도록 권장하고 돕는 일입니다.

영국 선교부에서 부름을 받고 봉사하고 있을 때 나는 선교부 산하 모든 지방부의 선교사들에게 각각 중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혹은 용기를 얻고 또는 지시와 안내를 받고자, 혹은 접견을 받고자 선교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에서 때로는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형제 여러분, 열시 십분입니다. 파리의 거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나가되 이곳에 올 때 함께 온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아닌 다른 형제와 짝을 지어 나가기 바랍니다. 박물관엘 가도 좋고 집 앞에서 있어도 좋고 집 안을 돌아다녀도 좋습니다. 단 삼십분 내에는 돌아와야 하며 돌아올 때에는 인생의 교훈 한 가지씩을 경전에서 인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일생에서 겪은 가장 훌륭한 체험의 하나였습니다. 이들 패기에 찬, 영특하고 활달한 젊은이들에게서 내가 배운 인생의 교훈을 나는 말로는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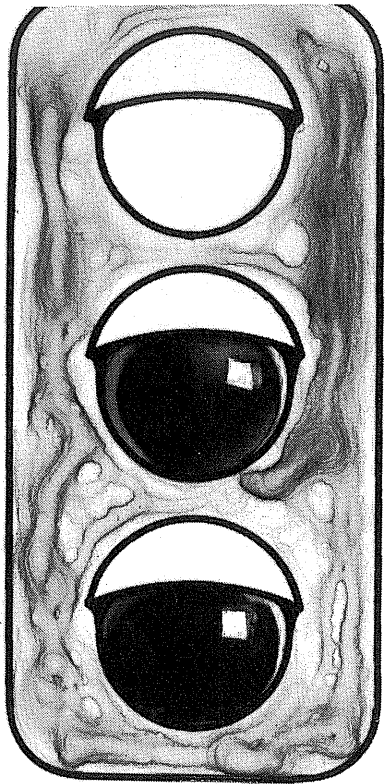
선교 본부에서 나는 유리창 너머로 맞은 편에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의 진행을 볼 수 있었고 계속 들려오는 망치 소리로 귀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새 대학 건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그 건물을 주의해서 보고 놀랐습니다. 건물을 짓는 소리가 여러 해를 두고 울려 퍼졌습니

다. 그리고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건물이 오래 가는 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짓는데 그토록 오랜 세월을 투입하니깐 말입니다.” 그후 그 건물은 오래도록 작업의 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나는 길 모퉁이에 서 있는 유명한 붉은 벽돌 건물,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이래 가장 위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한 그 과학자의 건물이 위에서부터 한장씩 벽돌이 제거되며 헐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나의 불평의 소리를 들은 일이 있는 젊은 선교사 하나가 눈을 크게 뜨고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크스 선교부장님, 하이드 공원 교회 윗층에서 최근에 길 건너 편을 내려다 본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는 “한번 보시는게 어때실런지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더러운 쓰레기를 안에 담고 걸만 번지르르한, 그 회칠한 무덤의 예를 경전의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제 생각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건물의 외부만 보고 곧잘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 작은 건물 뒤에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바쳐 벽돌 건물을 짓고 있다고 선교부장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주 보이는 건물에 가려서 그 뒤가 들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 지음에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프레드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나는 영특한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나 사상을 재빨리 표현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의 움직임에 바라본다는 것은 확실히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최근 나는 나의 그 기호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창한 언변이 자주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다분히 자기 설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다른 형태의 사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묵하고 이해심이 깊고 다른 사람의 권위와 존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되, 인내를 가지며 계속해서 탐구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친다는 작업은 그것이 가정에서거나 혹은 교실에서거나 간에 지상 최대의 과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경주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



# 무지의 값은 비싸다

하트만 벡터 2세  
칠십인 제일 장로 정원희 회장단

● 내가 고향을 떠나 해군에서 복무를 하던 몇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에 살던 부유하고 유능한 농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대 후에 집으로 돌아온 나는 사촌과 함께 그 농부의 유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도대체 그분 유산이 얼마나 되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의 사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모두 남겼지, 하나도 가져가지는 못했으니까.”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정도를 모를 사람이 없을, 그토록 평범한 진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한 동안 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을 때 모두를 가져가거나 할 것처럼 법석을 떨지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딤후 6:7)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것이 정말 아무 것도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지자 요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지식과 예지를 우리는 저

세상에 가져갈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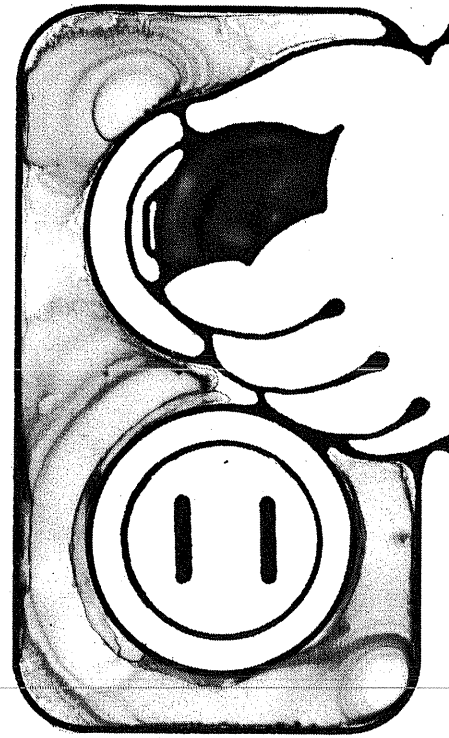
이 말씀이 진실일진대 우리는 빛과 진리와 예지를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하여 영원히 간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명을 좇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교성 93:36)이기 때문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면 길은 오직 하나 밖에 없습니다.

무지로 인하여 사람은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무지한 가운데 과오를 범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이를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느니라.”

(약 4:17) 또한 바울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다면 범법도 없는 것이라.”(롬 4:15)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따름으로서 얻는 축복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축복을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지로 말미암아 교통 법규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어쩔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전기 소켓에 손가락을 넣는다면 전기에 관하여 어떠한 지식을 가졌거나 간에 감전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지의 값은 비쌉니다. 이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교성 131:6) 주를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지혜롭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디게 배우며 또 빛을 받아들이는데 더딜까요? 주님께서 더디게 말씀하시거나 우리를 귀찮게 여기시는 때문일까요? 야고보서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약 1:5)

그렇다면 정작 문제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 의지가 있



나니, 이것이 인간이 정죄를 받는 소이니라. 이는 태초부터 존재하던 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나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음이라.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정죄를 받나니,” (교리와 성약 93 : 31—32)

그렇다면 사람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경전을 통하여 거듭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빛을 받

**무지의 값은 비쌉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무지보다 비싼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울만한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이겠다는 소망이 없는 까닭에 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 반박할 사람이 많을 줄 압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빛을 원하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죽은 자가 부활은 하되 각각 그 속하는 영광이 다르다고 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

이도록 합시다.

“나머지 사람도 또한 살리심을 받을 것이나 또다시 자신의 옛 장소로 돌아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꺼이 받지 아니 하였으므로 기꺼이 받으려 하는 것을 받게 되리라.

“선물이 들어왔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보라, 저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선물을 주는 자도 기뻐하지 아니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 : 32—33)

세익스피어의 쥘리아스 씨이저에서 카시우스가 부루터스에게 한 말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부루터스여! 우리의 이상 가운데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정리하는 일 속에 거짓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무지의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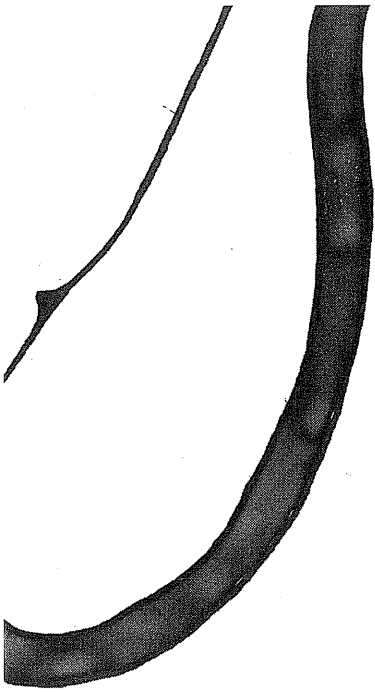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구하여 마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흔히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내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하겠습니까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그 빛을 받을 준비와 태세를 갖추어 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됾됨이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 : 19) 거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라는 부분입니다.

계시와 빛과 지식은 모두 성령의 전세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구세주의 말씀을 찾아 보기로 합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 : 26)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 : 13) 사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없이 복음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다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진리의 영이 전파하시는 대로 받아들임을 이해하지



못하며 알지 못함은 무슨 연고요?  
 “그런고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사람을 덕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두움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

“그런고로 저는 만물을 소유한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시는 생명이나 빛이나 영이나 권세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만물이 다 저에게 예속됨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정결하게 되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만물의 소유자가 아니니라.

“만일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되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교리와 성약 50:21—24, 27—29)

물몬경에 소개되는 위대한 선지

자 엘마는 성령의 힘을 입어 순종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이러한 권세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 하였으며 이제 그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아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 바로 내게 임한 계시의 영이었느니라.” (앨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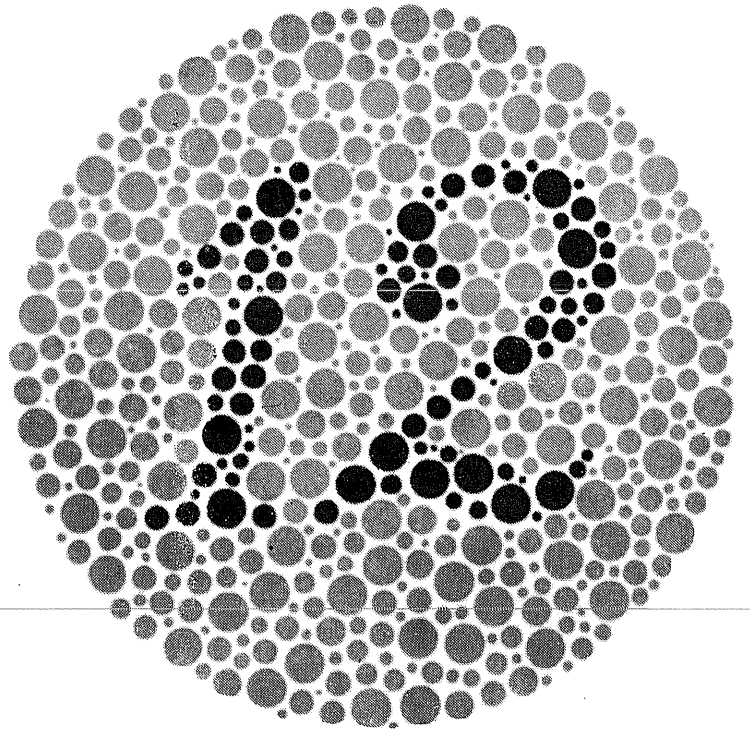
흔히 교회의 회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므로써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젊은 숙녀 한 사람이 나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무척 언짢은 안색으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를 결혼 상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마음 속에 꼭 약혼을 해야한다는 확신이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약혼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내게 묻는 질문 요지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와 결혼해야 한다는 대답을 저는 분명히 받았거든요.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더 계속하는 가운데 그녀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은 계명이 참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식과 기도가 전부

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연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므로써 빛과 진리와 예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치있는 재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저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대회에 이곳에서 들으신 말씀은 모두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말씀은 그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는 진정 살아 계시며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일해야 마땅하며 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는 깨끗하고, 순진하며, 밝고, 행복한 영과 그의 이웃에 대해 해를 끼친적이 없는 양심을 지니고 떠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복된 날을 빌며 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윌리암 에이치 베넷  
십이사도 보조

● 군에 복무하던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저는 각종 색깔, 무늬, 숫자를 사용하여 여러 형태의 색맹을 가려내는 이시하라 시력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검사를 받으면 어떤 특정한 색맹에 걸린 사람은 농담이 일정한 색깔을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농담이 일정치 않은 색깔 사이에 있는 어두운 곳은 역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색맹인 사람은 색깔을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하며, 설사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눈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빛깔의 차이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시하라 시력 검사에서 저는 우리 생애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상에 설명한 색맹의 상태와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관한 강한 간증을 발전시키려고 열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일을 기꺼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교회 회원의 상태와의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사람은 모든 진리의 위대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의 문을 자신의 태만의 죄로 닫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의 통찰력이 불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인간은 어두운 곳도 만나고 어스름한 지역도 만나며 때로는 아주 캄캄한 골목길도 만나곤 합니다. 이러한 곳에 처해서 우리들이 하늘의 힘에 도움을 입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결론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곳은 물질의 세계에도 나타나고, 정신의

세계에도 나타나며, 더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여하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함께 상기해 봅시다.

“그런고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느 때에도 결코 나의 속세에 관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어떠한 사람에게나 인간의 자녀들에게나 내가 창조한 너희 시조 아담에게 까지도 준 일이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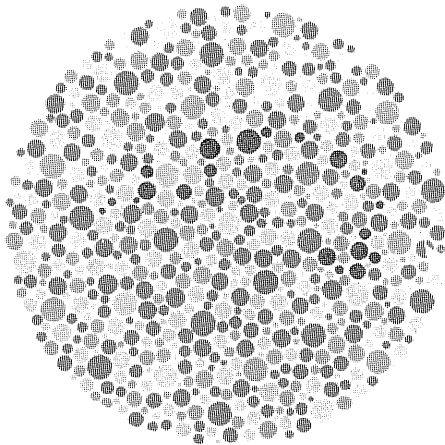
보라, 나는 아담에게 자신의 자유 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허락하였고 계명을 주었으나 나의 계명은 영적인 까닭으로 속세에 관한 계명을 저에게 주지 아니 하였노라. 육체적인 것이거나 물질적인 것도 아니요, 육욕적인 것이거나 정욕적인 것도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29 : 34—35)

우리들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이해하려 할 때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과 하늘이 서로 맞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 저쪽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건물이나 산이나 비행기에 올라 우리의 관찰하는 위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부문에서는 물론, 정신과 영적인 부문에 걸쳐 우리 생애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우리의 관찰하는 위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상

황이든 그곳에는 사실과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문제에는 원인도 있으며 밖에 나타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사실과 원인을 찾아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둔하게 여론과 증상을 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을 정도라면 우리는 난문제를 뒤로 미루며 영구적이고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말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의 교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이외에 배움의 조건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상 생활 동안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지식은 전반적인 지식의 한 작은 단편에 불과하며 우리가 늘 속달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일부에 국한된 전문 분야에 속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내면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고가 매우 단편적으로 분리되는가 하면 우리의 판단이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 하면 우리들은 기쁘게 다음과 같은 솔로몬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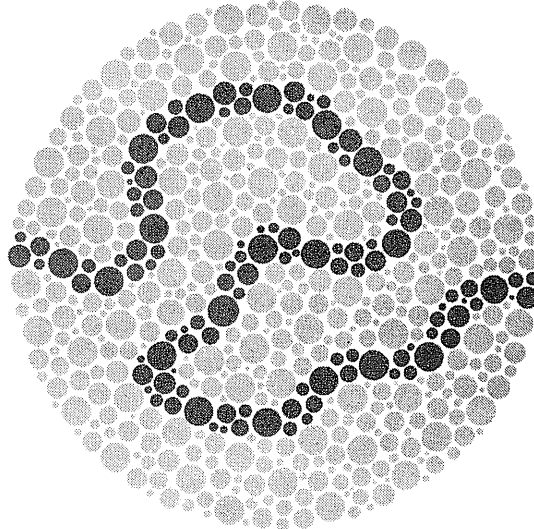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 : 5-6)

성스런 인도 없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길에서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홀로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고대 예언자와 현대 예언자들도 우리 인생의 여로를 위해

틀한 길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길 표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찾고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은 길 표시와 방향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경전과 현대 예언자의 영감받



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요한복음 7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로마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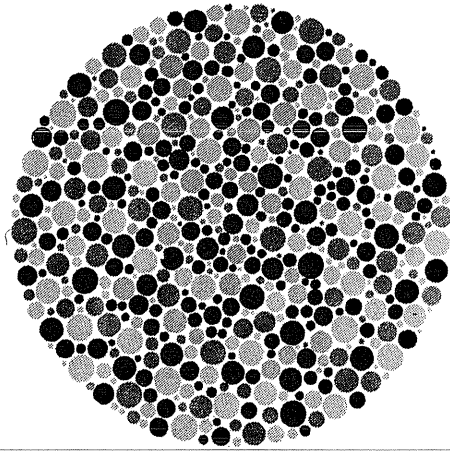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물론경 엘마서 26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은 암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며 선행하고 쉬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나니, 이러한 자에게만 지금까지 계시되지 않은 것을 계시해 주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6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리고 교리와 성약 18편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와 말틴 해리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게 되리라 하고 믿는 신앙을 지니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성신을 받으리니, 성신은 인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나타내 주시느니라.”

또 121편 45절과 4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나 신앙의 권속에게 향한 너희 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가리라.”

주님께서는 물론경의 모로나이서 10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성신의 권속으로써 우리가 온갖 진리를 알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약속이 아닙니까?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이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칠패를 받은 뒤 우리들이 확인 안수를 받을 때 권능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성신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의 길을 따라 생활한

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임할 수 있는 성신의 위대한 힘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어두운 길에서는 물론 사실상 우리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성신은 우리의 시야를 확대시켜 주고 우리를 위해 불을 밝혀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이들은 경전과 현대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기는 커녕 오히려 이것들을 불신하는 경향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 속에서 우려나오는 이야기들을 드립니다만, 만약 그들이 믿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믿어 보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며 부지런히 연구한다면 성신은 그들을 도와 주실 것이며, 그들은 현재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중에서 많은 것을 믿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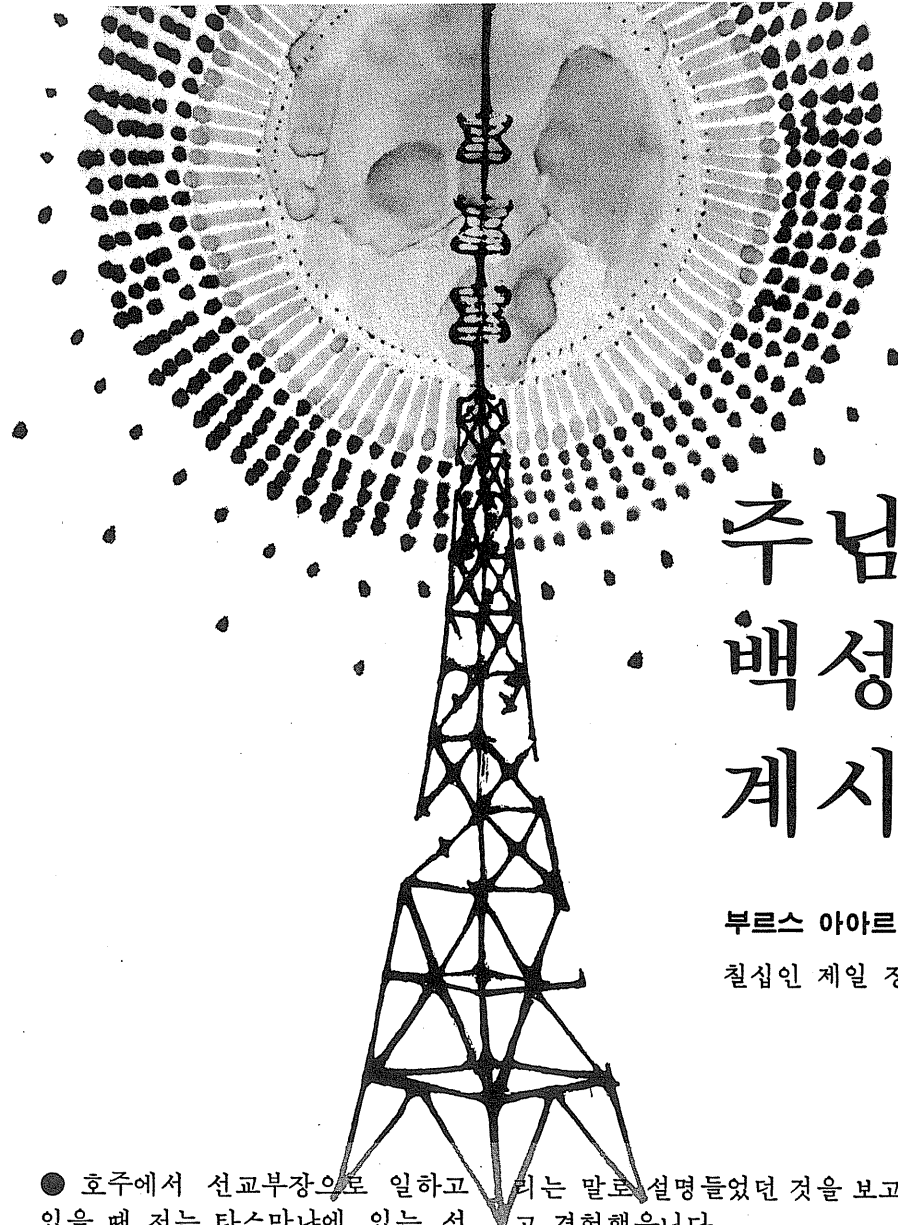
성신은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만 이때 사람들은 다만 죽어야 할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현세의 상태만을 고찰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생은 시작도 아니요 끝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신의 도움으로 우리의 안목을 넓히고 전세의 상태는 물론 죽은 이후에 오는 내세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성신이야말로 우리들이 어두운 곳에서 더 선명하게 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신이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고 강한 신앙으로 생활하며 선행을 해야 하고, 금식 기도를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대로 생활하고 교회 내에서 활동적으로 일하고 더 나아가 이 기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봉사하는데 우리 몸을 맡기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교실에서, 전쟁터에서, 교회의 지명을 이행하는 곳에서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뿐 아니라 진실로 생의 모든 면에서 성신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주님앞에서 겸손하면서 신앙으로 생활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복음을 실천하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준비할 때 영향력이 가장 많이 발휘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복음이 진실하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이며 오늘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 주님의 백성은 계시를 받는다

부르스 아아르 맥콩키

칠십인 제일 장로 정원회 회장단

● 호주에서 선교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저는 타스마니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웰링톤 산에 등산하여 정상에서 선교사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고 그의 영을 받기 위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등산을 하였고 정상에 머무는 동안 텔레비전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준수하게 생긴 청년 한 명이 우리에게 생전 처음 듣는 말로 제가 이해할 수도 없는 원리를 사용하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이 어떻게 하여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방영되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밤 호바르트 시에 돌아와서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주파수를 맞추어 놓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우

리는 말로 설명되었던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이 계시를 받고 시현을 보는 것에 관한 사실을 완전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록에서 시현과 계시에 관한 것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당시 복음의 충만함을 누렸던 백성의 영감받은 기록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보고 듣고 경험할 때까지는 관련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태버나클에는 현재 말씀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헨델의 메시아가 노래로 불려지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가들은 자기들 백성에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1. 조지 프레드릭 헨델(1685~1759년) 독일 태생, 영국 작곡가.

또 이 태버나클에는 베트남과 워싱턴의 광경이 딱 차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이 달의 표면을 걷고 있는 사진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고 텔레비전의 채널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순간 우리는 전연 모르고 있던 사실을 듣고 보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관한 계시와 시현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더우기 이곳 태버나클은 경전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등급의 영광에 관한 시현도 지금 우리들 앞에 방송되고 있으나 우리가 성신이 방송하고 있는 주파수에 우리의 영혼을 맞추지 아

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또는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 아

계십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도 이해하

있는 율법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 있는 수백만 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맛보지 못한 채 살다가 죽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의 계시를 그들의 영혼에 불어 넣어주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참된 종교를 갖기 위한 유일한 길은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종교는 계시를 받는 종교이지 인간의 지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또 인간은 자신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활시킬 수 없고 스스로 하늘 왕국의 기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할 일은 오로지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타나시지 않고 항상 미지 속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영적인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나 조사나 이성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모릅니다. 저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문의 분야에서 대학의 최고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과 지식의 분야는 심혈을 기울일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엔다우먼트와 비교할 때 그러한 것들은 초라하고 덧없는 가치에 불과합니다. 영원을 내다 볼 때 우리들 각자가 필요한 것은 신앙과 의로움에서 얻는 최고 학위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이롭게 해주는 것은 이성의 힘이 아닌 계시로 받는 능력이요, 연구에 의해 체득한 진리가 아닌 신앙으로 얻는 지식이요, 세상 일에 관한 우리의



무도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데저렛 출판사, 1968], 328페이지)

모로나이는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 10:5)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 계시하고, 가르치고, 간증하도록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무한히 방송하고

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계곡에서 우리의 영혼을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조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듣고 보고 경험하므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움직이는 법칙은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으나 다만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 기이한 일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시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에 관한 일을 알 수

지식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관한 지식인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만약 인간이 하늘을 5분간만 주시하면 종교 문제에 관하여 이제까지 쓰여진 것을 다 읽어서 아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일에 관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아직 종교적인 경험을 전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알고 있고 종교에 관한 서적을 저술하였으나 딱딱한 참나무처럼 영성을 전연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의 교리에 대한 관심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대신 오히려 자기들의 사변적인 이론을 옹호하는데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와 저술은 이성과 지식인들의 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았으며 그들은 거듭나서 성신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도 않았고 계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갖는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확인 안수를 받을 때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 은사는 충실함에 따라 신회의 한 분이신 성신의 영원한 동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이 은사를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합당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준 계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로써……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교성 121:26)

니파이는 부친이 받은 계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부친이 저들에게 주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음이라…”

이 계시에 대해 레이먼과 레뮤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친이 말씀하셨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니파이는 “너희가 주께 간구하여 보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간구하지 않았노라.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심이라.” 저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을 강박하게 먹어 스스로 멸망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응답되리라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니파이일서 15:3, 7-11)

계시를 받는 것은 교회 회원이 가진 특권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에게 어떤 일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알려야 할 일을 십이사도에게도 계시하십니다. 가장 작은 성도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만큼 모든 일을 속히 알 수 있습니다.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9페이지)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은 모든 장로가 갖는 특권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모인다면 장막은 오늘처럼 다음 주에나 아니면 또 다른 때에 벗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9페이지)

종교란 반드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니파이인에게 행하신 성역의 기록중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보라 아버지께 간구하시었으니 이제 그

간구하신 대로 날날이 기록하지는 못하나, 그의 간구를 들은 자들이 그 들은 바를 증거하였고,

“저들의 증거함이 이러하였더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보매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니파이삼서 17:15-17)

그리고 그후의 기도에 관해 경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 말씀을 기록할 사람이 없었으나,

“우리가 듣고 증거하였으며 저들의 심령이 열린지라,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저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알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이 심히 크고 놀라움에 기록하거나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라.” (니파이삼서 19:32-34)

종교는 계시에 의해 하나님에서부터 생기는 것으로 영적인 일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계시를 받지 않고 있으면 그는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구원을 얻는 길에 서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를 받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계시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이시며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지식이 말일에 회복되었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야말로 명실공히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풍요의 율법

프랭크린 디이 리차즈

십이사도 보조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처럼 영적인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날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지도자들이 말씀하신 메시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의 자원에 대해서 풍요로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우기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시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생명이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만드는 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쁘게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힘 그리고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설교집, 제2권 119페이지)

또, “만일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백성들에게는 재능과 힘과 지혜와 지상의 부가 증가될 것입니다.”(설교집, 제2권 110페이지)

“만약 우리가 축복을 위해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인봉된 축복은 전연 무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설교집, 제2권, 117페이지)

또 다른 경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의 부와 재능의 증진에 대한 약속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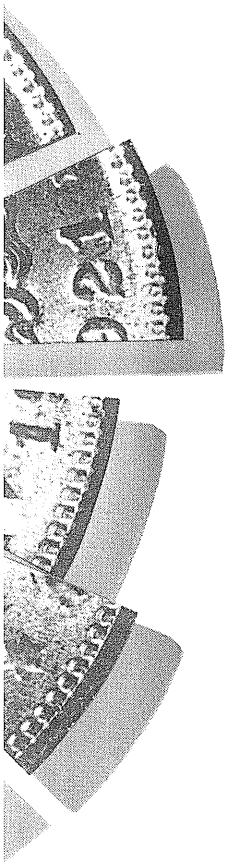
람에게 주어졌으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재능과 재산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전에는 재물을 소유하거나 이를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초래하게 되는 유혹에 관한 훈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단 악의 뿌리가 되나니……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

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딤후 6 : 10, 17-18)

교회 역사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노동, 근면 그리고 검약의 원리를 가르쳤고, 교회 회원들은 이를 실천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번영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 유지하도록 권고받았으며 고용을 증진시키는 산업을 육성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장려하기 위해서 재산과 자원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의 왕국을



태도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부유한 자가 지녀야 할 의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 단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허식이나 낭비를 피하는 모범을 보이며 자기의 부양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고 나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잉여 수입은 다만 신탁 기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신탁 기금이란 그가 관리하도록 부탁받은 것으로 그가 판단하여 반드시 사회를 위해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신중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닌 기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는 그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다만 수탁자와 대리인이 되어 그의 뛰어난 지혜와 경험과 관리능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의 형제들이 자기들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부의 복음)

이와같은 부의 철학을 염두에 두면 다음과 같은 말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있는 인간인가는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찰해 볼 때 인간이 받는 실제의 시험이란 지상의 재물에 대해 갖는 그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우리의 사업은 곧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들은 매개 자신의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이기심이 없게 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난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불우한 어린이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불쌍한 자를

위해 병원을 지을텐데.”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거액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각자는 우리가 가진 소망대로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바치고 기타 헌금을 함으로써 이 훌륭한 사업을 서로 나누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지금은 회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라.”(교성 64:23)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정직하게 이 명을 받들어 지키고 있는 사람의 수가 실제로 매우 적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8, 10)

십일조는 신성한 기금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나의 교회의 재판장단과 감독과 그의 평의회와 나의 고등 평의회로 구성된 회의로서 십일조를 처리할 시기가 이르렀니라. 이는 저들에게 고하는 나의 음성으로써

위해 가장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기 위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다시 브리검 영 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 세상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재물을 우리에게 기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근면, 절제, 관리 그리고 절약으로 부유하게 되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재물을 바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설교집, 제2권, 114—115페이지)

앤드류 카베기<sup>1</sup>는 재물에 대한 그의

1. 앤드류 카베기(1835~1919년) 스코틀랜드 태생의 미국 사업가, 박애주의자.

해야 하느니라.”(교성 120)고 계시하였습니다.

교회가 전 세계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배당, 학교, 세미나리, 신전, 병원, 선교부, 방문자 센터 그리고 이외에 건물은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회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지출되어야 하고 이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산 자이든 죽은 자이든 교회 회원의 영적인 요구와 더불어 세상적인 요구까지도 살펴주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본보기로는 교육, 선교 사업, 복지 사업, 보조 조직, 사회 봉사, 계보 및 그 외에 많은 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백여년 동안 이러한 날이 있을 것을 고대하고 있었읍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은 우리들 자신의 책임은 물론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6-7)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네 자신의 재산을 탐하지 말고.....아낌없이 내어 놓으라.”(교성 19:26)

우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롭게 하기 위한 재물의 수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많은 적든 이를 숭배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비해 세상의 재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희생을 하자는 말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은 참으로 위대한 특권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아름다운 작은 예배당 하나를 헌당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와드 건축 비용의 할당금(5,000불)의 잔액을 치르기 위해 감독은 모든 회원에게 부탁하여 어린 이들에게 줄 성탄절 선물 비용을 줄여 건축 기금으로 기증하도록 부탁하였다고 했습니다. 회원들은 저마다 이것이 희생이 아니라 하나의 축복을 얻는 기회라 생각하고 기꺼이 이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헌납식에서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직하게 헌납한 금액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부나 어린이가 바치는 적은 돈일지라도 부자의 헌금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님께 정직하게 그들의 십일조와 헌물을 바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정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서 몇 배나 되는 축복을 받으며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임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드리며 저는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이 이러한 간증을 드릴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나니라.”(행 20:35)

그러면 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선행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바칩시다. 또한 주님께 정직하게 십일조와 헌물을 바칠 것을 다같이 결심합시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주이심을 압니다. 이 사실은 지상의 보화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셨으며 오늘날 교회의 머리로서 살아 계시는 예언자이신 죠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 역시 지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간증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간증이란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진실한 말일성도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그 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복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같이 우리보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나누어 주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훌륭한 선물이 되게 합시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서부로 가다

매리 프랫 페리쉬 씀 버지니아 썬전트 그림

● 베시는 여섯살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큰 오빠 토미와 나부에서 지금까지 즐겁게 살았는데 최근에 고민이 생겼다. 거의 매일같이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우리는 풀이 무성하고 강물이 흐르는 서부로 가게 될꺼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으나 곧 나부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이 집을 떠나 멀리 간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녀는 정말로 멀리 떠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벽에 매달린 시제의 추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시제도 가지고 갈까? 크고 둥그런 등의자도 갖고 갈건가? 부엌에서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난로, 식탁, 의자들도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어디다 놓게 될까? 어제는 아빠와 함께 철공소에 가서 서부로 가는데 쓸 포장 마차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 그 포장 마차는 모든 것들 다 가져갈 만큼 크지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베시의 고양이는 야옹거리면서 베시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몸을 굽혀서 고양이를 안고 난로 앞에 앉았다. 창 밖에서 눈이 송이버섯처럼 담 위에 쌓이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키티야, 지금 서부로 가려면 너무 춥지? 아마 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될꺼야.” 라고 말했다.

대답을 하듯이 고양이는 무릎 위로 기어 올라오더니 팔꿈치 위에다 조그만 코를 박고 잠이 들었다. 벽

창 밖에서 눈이  
송이버섯처럼 담 위에  
그녀는 “키티야, 지금 서부로 가면  
너무 춥지...” 라고 말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것 같았다.  
늙은 벨의 목에다가  
쿨레를 매달았다고 말했다.



위의 시계가 “자장 자장 베시”라고 말하는 듯 했고 베시도 곧 잠이 들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토미는 늙은 벨의 목에다가 쿨레를 매달았다고 말했다.

“어디로 가요?” 하고 베시가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녀는 추워서 외투를 걸치고 서서 바라보았다. 아버지께서는, “토미야, 네가 좋아하는 양을 가져갈 수 없어서 정말 안됐구나! 우리가 봄까지 기다릴 수가 없게 됐단다. 그때는 풀이 무성하겠지만 지금은 땅이 얼어서 풀도 물도 없을꺼야. 우리가 먹을 곡식마저 전부 황소에게 주어야 될꺼야.”고 말씀하시는 것을 베시는 가까이 서서 들었다.

“그럼 왜 지금 떠나지요? 봄까지 왜 못 기다리지요?” 하고 토미가 물었다.

“머물러 있을 곳이 못돼” 하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제 밤에 어느 형제가 괴한에게 잡혀 매질을 당했단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형편이란다. 삼주일 전 어느 몹시 추운 날 두 가족이 집에서 쫓겨났고 집이 불에 타서 쓰러지는 광경을 보았단다.

오늘 아침에 브리감 영 형제가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과 만나 상의해서 지금 곧 떠나면 많은 곤욕을 피하게 될거라고 결정을 내렸단다. 그래서 지금 떠나려는거야.”

“물론 식량도 부족하고 소들이 고생할테지. 그렇지만 영 대관장님은 모두가 손을 들어 지지하라고 요청하셨으며, 그분이 가진 것을 우리와 나누어 가지겠다고 약속하셨단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 떨어지면 또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필요한 것을 더 갖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단다. 네 숫양은 누군가가 발견해서 돌봐 줄꺼야 토미야.”

베시는 토미가 울음을 참으려고 손을 목에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도 보시고는 토미를 안고 “지금은 여덟 살짜리 소년들도 어른처럼 행동해야 할 때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제 것도 몇 가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토미가 말했다.

토미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우리들 중에 아무도 자기 것을 다 가져 갈 수가 없단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속한 것이어야 한



단다. 그렇지만 네가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걸 가져갈 것이 있단다. 제일 윗 서랍에 있는 낡은 깃발이다. 너의 할아버지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자유를 위해 싸우실 때 쓰시던 깃발이다. 가서 그걸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걸 네가 우릴 위해 간직해라.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다.”

베시는 이제 자기들이 어디로 가려는지 알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고양이를 안았다. 그녀가 너무 꼭 껴안아서 고양이가 야옹거리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어깨를 핥기었지만 내려놓질 않았다. 어머니는 베시가 울음을 참는 것을 보시고는, “왜 그러니?” 하고 물으셨다. “고양이를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지요?” 하고 베시가 물었다.

어머니는 곤란한 빛을 보이셨다. 어머니는 창밖의 소를 힐끔 쳐다보시고 다시 문밖의 포장 마차를 훑어보시더니 마차 너머 먼 산을 보시는듯 했다. “너도 알겠지만 베시야 우리는 소를 가지고 갈꺼야. 그래서 우리 식구만 간다면 고양이도 먹일만큼 우유가 충분하겠지만 말이야, 소가 없는 집의 아이들도 함께 갈텐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계속 우유를 먹어야 할게 아니니? 네 고양이 때문에 어린 아기가 우유를 못먹고 배고파하는 것을 너도 원하지 않겠지. 그렇지?”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베시의 눈은 둥그레졌다. “난 서부로 가기 싫어요. 난 여기서 내 고양이, 시계, 내 침대하고 같이 살래요.” 하면서 그녀는 자기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가 종종 자기를 안고 앉아계셨던 둥근 등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목이 아팠다.

마침내 그녀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도 집을 떠나 서부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시는 자기가 어린애처럼 행동한 것이 미안했다. 그녀는 이제 여섯살이니 어른처럼 행동할 만한 나이였다.

베시는 의자에서 어깨를 세우고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서부로 가는데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어지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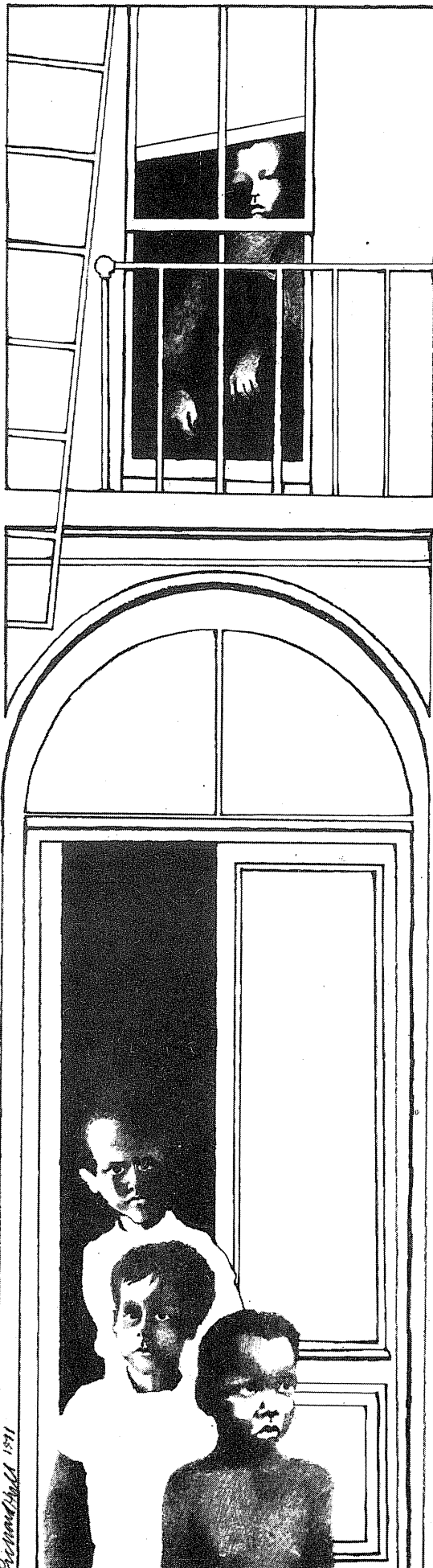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고는 베시를 한번 껴안아 주신 다음, “이 비누들을 상자 안에 넣어줄 수 있겠지? 우리는 한참 지나야 비누를 만들 수가 있을테니까”하고 말씀하셨다.

마침내 그들은 떠날 준비가 다 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차 앞 좌석에 앉으셨고 토미와 베시는 뒤담털 침낭 위에 앉았다. 마차 위에는 바닥에서부터 식량을 쌓아 놓았다. 높은 벨은 마차 뒷 축에 매어졌고 소가 디딘 발자국을 무심히 따랐다.

토미와 베시는 옛 집을 돌아다 보았다. 양은 아직도 목장에 있었다. 집에서 가르던 숫양은 아직도 문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베시는 고양이를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만 따뜻하게 집안에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들은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물 위에 저녁 햇살이 지기 전 집을 꾸리고 그들 뒤를 따르게 될 친구들과 이웃에게 손을 흔들었다. ○







# 당면한 사회 문제를 대처해 나감

윌리엄 이 베렛

● 얼마 전에 한 주일학교 교사는 일년 전에 자기 반원이었던 어느 소년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소년은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려고 고향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가 제기한 문제는 교회의 모든 교사가 당면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교회를 알게 되고 개종을 하여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나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 대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교회가 실직자나 미성년자나 전상자를 돕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많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하며, 이 소년의 관심은 칭찬할만 하다고 하겠습니까. 그의 정신은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잘 인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현 세계의 사회 상태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요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하는 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러한 문제에 관해 어떻게 처리하셨나 하는 점과 오늘날 그의 예언자가 무엇을 행하라고 가르치셨나를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지니고 있는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빈부의 차가 격심했던 곳입니다. 마을이나 도심지에는 거지들이 들끓었습니다. 질병이 또한 성행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원주민은 로마의 통치 밑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처에서 도적떼와 산적이 나타났습니다. 외로운 여행자에게 야수와 같은 공격을 가한 이야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님은 십이사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으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지금까지 다른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기록이 모두 계시로 나타난 것 같았다. 그후 교리와 성약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해주었다. 나는 읽으면서 동시에 들을 수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속에 명확히 울렸던 것이다. 나는 이 위대한 책을 읽으면서 늘 정신이 승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르다. 지금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느끼며 읽는다.

나는 왜 열 여섯 살에 이렇게 느낄 수 없었는가? 여러분은 이 점을 이해하려고 육십세까지 기다리지 마시오. 성신으로 갈구하는 마음과 성신의 도움으로 주님의 계시중에 하나를 택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너무 늦게 배웠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53년 전 내가 일차 대전 당시 군인이었을 때, 즉 1918년에 그러한 경험이 시작되었다. 휴전 후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 연대에서는 축구 팀을 조직했다. 나는 팀의 선수였으므로 잡일이나 일반 훈련에서 면제되었다. 또한 선수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인 보르도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보르도에 갔을 때 한번은 대성당 안에 훌륭한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감상했다. 그 그림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었다. 그림은 아주 컸고 가로 팔인치, 세로 십오 인치 크기였으며 훌륭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그림을 오랫동안 보았지만 결코 싫증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후 나는 YMCA로 가서 편지를 몇 장 썼고 결국 막사로 태워다 줄 트럭이 있는 마을 광장으로 갔다.

전문의 그림자가 진 곳에 내가 서 있는 동안 같은 팀 친구가 그 장소에 도착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둡어둡한 길거리에서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 어느 불란서 소녀가 다가 오더니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불어를 할줄 몰랐으나 그녀가 사용한 말은 알아 들은 것 같았다. 그는 사방을 휘 둘러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그 소녀와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후 우리는 제대했고 쉐트 레이크 시에 도착했다. 나는 분명히 지금 그 남자의 아내인 어느 여성이 그에게 달려와서 그의 팔에 아기를 안겨주는 걸 보았다. 나는 그가 처음으로 자기 자식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다. 나는 아직도 의아해 하고 있다.

52년 전인 1919년의 일이었다. 나는 오년 전에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죄의 값은 사망”(롬 6 : 23)이라는, 영의 죽음을 초래한다는 명백한 도덕을 강조한 적이 있다.

말을 하면서 갑자기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즉 내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와 그를 만났거나 그를 불렀거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는 아마 그 소녀와 함께 어디론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간단한 행동으로 나는 그를 구했을런지도 모른다. 다만 그때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 다음



부터 나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내 생애에서 다른 사람의 진로를 변화시켜 옳은 길로 가게 한 말, 몸짓, 행동을 몇 번이나 했었는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은 누구나 우리 생애와 영생을 통한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했다면 타인이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을 텐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짓게 되는 죄는 어떻게 될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성신을 인식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시험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치 있게 산다면 성신의 능력이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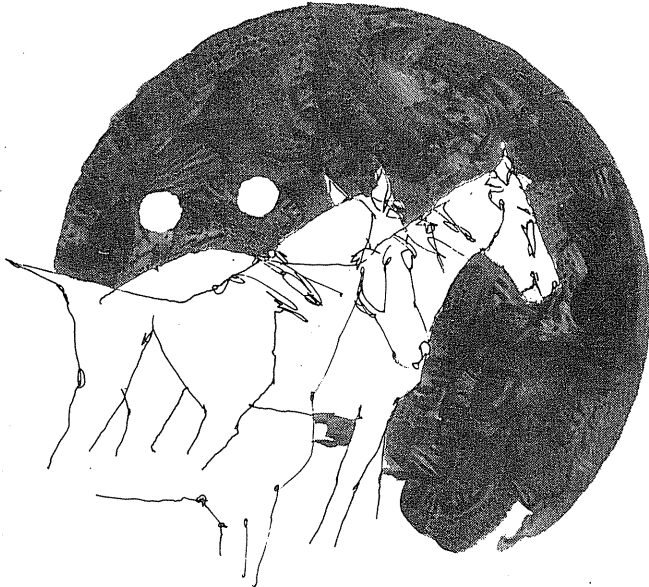
순간적으로 보호받은 행위나, 성령의 말씀처럼 느껴질 때, 어느 귀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등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침례 때 성신의 은사를 받고 그의 영향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인 것이다.

여러분은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경고와 인도의 손길을 얼마나 친절히 뻗치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다. 어느 사람에게 경고해 주지 않아서 타락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물론 고의적으로 또 다른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다.

세상은 넓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목소리를 느끼도록 배우지 않는다면 거의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경전을 읽 어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감동받을 때 여러분은 이러한 약속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성장기에 좀 더 일찍이 이 은사를 인식하고 경험하며, 크고 첫째되는 계명과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과 같은 내용인 둘째 계명의 실천에 관해 배운다면 여러분은 큰 소망과 영생을 보상받을 것이다. 그리고 삶이 늘 아름다워 질 것이다.○

다. 그 곤경에서 빠져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정상까지 되돌아가는 일이었다. 정상까지 다시 오를 때의 위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나는 어떤 힘으로 인하여 숨을 쉬려고 멈추지도 않았고 다리가 무감각해 지지도 않은 채 그 날 두 시간 걸었던 길을 삼십분 동안에 정상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드레날린에게서 나온 힘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힘은 나에게서 나온 힘과는 전혀 다른 힘이었다.

우리는 함께 하산하여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겨우 안전한 지점에 이르렀다. 만일 우리가 좀 시간을 지체했다라면 코트도 없이 해발 13,500~14,000피트가 되는 지점에서 밤을 세워야 했을 것이다. 나는 또한 3,000 피트의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꽁꽁 얼어 있을 극한 상황을 여러번 생각했다. 나는 또한 두 시간의 거리를 단 30분에 오를 수 있었던 알 수 없는 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세번째 일은 1946—47년 사이 겨울에 일어났다. 나는 마흔 아홉 살이었다. 영 자매와 나는 멕시코로 처남의 장례식에 가는 중이었다. 우리는 밤 9시 30분에 뉴 멕시코 켈업을 향해 남 쪽으로 콜로라도의 코르테즈를 벗어나고 있었다. 날씨가 몹시 추웠다. 온도가 영하 10도였기 때문이다.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흙이 섞인 눈보라를 일으켜 길을 내다보기가 어려웠고 진행해 가지도 어려웠다. 우리는 자동차 안에 난방 장치가 없었으므로 누비 이불을 깊숙히 쓰고 앉아 있었다. 우리는 틀림없이 시속 오십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어둡고 폭풍이 부는 가운데 갑자기 두 마리의 말이 도로 위에서 이리저리 뛰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내가 보았을 때는 말들이 막 왼 쪽으로 건너가고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내 손은 운전대를 왼 쪽으로 돌렸다. 순간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 왼 쪽 바위가 도랑에 빠지기 직전에 멈추었다. 우리가 차소리를 내자 말이 머리를 높이 쳐들었다가 뒤로 비틀었으며 우리는 그의 코를 살짝 스쳐 지나갔다. 다음 순간 우리는 본 길로 되돌아왔다. 나는 그때 말을 피하도록 운전할만큼 충분히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더군다나 길

옆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할 수 없었다고 기억이 된다. 운전해 준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또 다른 경험도 있었다.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일들은 물론 기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느 경우에도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 혼자서 그 곤경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내 생애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이 권고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실을 보아왔다. 비록 나는 큰소리로 그러한 권고를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런 경험을 믿는다.

언젠가 나는 물몬경을 읽다가 레이먼과 레뮤엘이 니파이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니파이가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너희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으며, 너희는 시시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천사가 너희에게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였으나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 저가 천둥같은 소리로 말하매 마치 땅이 갈라질듯 진동하였느니라.”(니파이일서 17 : 45)

이 특별한 귀절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은 밝아진다. 위대한 빛이 마음에 쬐지는 것 같다. 나는 성신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방법을 니파이가 단언하고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작고 조용한 소리” “마음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바로 그것이다! 여러분이 영감을 받을 때는 생각과 함께 확실한 느낌이 마음 속에 떠오른다. 여러분은 성신이 증거하는 바를 깨닫고 이해하도록 배워야 한다. 성신은 작고 조용한 소리로—항상 말로만 전해 주지는 않지만—말해 준다.

십대였을 때 나는 종종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할까하고 생각해 보곤 했다. 나는 모세, 이사야, 침례 요한, 그리고 특히 요셉 스미스는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갈망했다. 나는 신을 모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 열망은 나의 정직한 소망이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부름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쏟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는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은 기록상으로도 드문 일이다.

이 소망에 대한 응답은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에 대해 내가 받고 있었던 것처럼 내게는 아주 극적인 것이었다. 십년전쯤의 어느날 (내 나이 육십 사세였다) 나는 교리와 성약 18편을 읽고 있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그런고로 너희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요, 인간의 것이 아님을 증거하라.

“나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짐이라. 나의 능력으로써 너희는 그 말을 서로 읽어 줄 수 있으나 나의 능력 없이는 그 말을 읽을 수 없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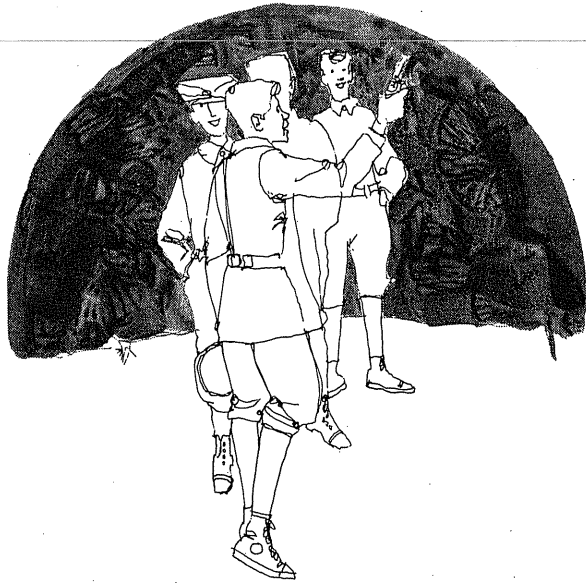
그런고로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었고 나의 말을 알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8 : 34—36)

십이사도 정원회가 구성되기 오년 전이었는 데 여기서 주

# 성신은 어떻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가

에스 딜워스 영  
칠십인 제일 장로 정원회 회장단

● 내가 긴 생애를 회상할 때는 쉽사리 죽음을 초래할 뻔 했으나 구사 일생으로 면한 경험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죽음을 면한 경험은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다.



내가 열 한살이던 해 어느 날 아침 나는 형, 사촌, 그리고 어느 소년과 함께 쏘트레이크 시 크리크 캐논의 산 모퉁이에 서 있었다.

네째 소년은 22구경 권총을 갖고 있었다.

그는 평평한 곳에 이르면 총의 공이치기를 벗기고 총을 높이 쳐들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면서 버팔로 빌<sup>1</sup>의 총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했다.

갑자기 나는 왼팔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내려다 보니 까 윈 팔 근육의 흰 소매에 붉은색 얼룩이 보였다. 그 얼룩이 점점 번져가고 있었다. 나는 “총에 맞았어”라고 소리를 친 다음 집으로 달려갔다.

총알은 뼈나 동맥을 스치지 않은채 내 팔을 완전히 관통한 것이다. 나는 제일 왼 쪽에 있었고 총을 가졌던 소년이 오른 쪽 끝에 있었다. 총알은 심장 높이로 내 가슴 앞을 지났던 것인데 틀림없이 가슴팍에 닿을듯 말듯 가깝게 스쳐

1. 버팔로 빌—윌리엄 프레데릭 코더—(1845~1917), 미국 변경 개척자, 소년단원



간 것 같다. 그렇게 가까이 스치지 않았다면 내 팔에 총알이 맞았을 수가 없다. 만약에 총이 4분의 1인치만 더 왼 쪽으로 향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 있지 못할 것이다.

그후 나는 그 때에 나를 보호해 준 것은 어떤 힘이 있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곤했다. 나는 내가 보호받도록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때에는 분명히 내가 보호받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두번째 사건은 내가 스물 아홉살이었을 때 발생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9월 어느 화창한 날 코로라도에 있는 롱스 봉우리에 올라갔다. 롱스 봉은 해발 14,256 피트이다. 그런 고지에서는 서너 발자국만 가면 발이 얼어서 삼사분 동안 힘을 얻은 다음 다시 서너 발자국을 갈 수가 있었다.

우리가 정상에 오른 것은 늦은 오후였다. 정상에서 천 피트 높이로 보이는 능선이 보였는데 하산 시간을 반으로 단축시켜 줄듯 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의 경고도 듣지 않고 산의 북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500 피트 정도 내려왔을 때 나는 갑자기 그 전날 밤에 내린 폭설 때문에 빙판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왼 쪽 가로 가서 수천 피트 높이의 절벽에 도달했



것이다.

그러나 바위가 많은 이 산에서 그들은 아주 고립되었으며, 그들의 가정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이 한 것처럼 그들도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죽음으로써 맹세했다.

매드린의 가족은 이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지만 결코 싫증나지가 않았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 까지도 키가 크고 힘센 할아버지들의 용기를 듣는데 어떤 전율을



느낄 정도였다. 나이 든 아이들은 자기들의 가정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요 1:5 참조)라는 모토를 가진 자기들 교회에 대해 자주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이 든 뒤에 매드린은 부모 목소리를 잠결에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참된 복음을 갖고 있으니 매드린이 꾸는 꿈은 실제로 의미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고 주장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매드린은 아버지의 대답을 듣지 못했으나 해가 바뀌는 동안 가끔 아버지는 그녀의 꿈에 대해 그녀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물으셨다.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을 그녀가 잊어버렸는데 아버지는

날날이 기억하고 계셨다.

매드린이 꿈을 꾸지 팔년 후에 사르디니아 왕은 영국과 그밖의 나라에서 피드몬트 신교도들을 박해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아서 왈도인의 종교적인 자유를 허가했다. 비극의 800년 전쟁은 1848년 2월에 막을 내린 것이다.

후일에 교회의 오대 대관장이 된 로렌조 스노우는 바로 그 다음 해에 이태리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두 동반자와 그는 그들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하나도 찾아낼 수 없었다. 낙심하여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다. 어두움이 있을 뿐이다.”

1850년 9월 18일에 로렌조 스노우와 그의 두 동반자는 북 이태리에 있는 높은 산 큰 바위 위에서 주님께 인도해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은 그런 다음 그 땅을 복음을 전파할 땅으로 헌납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섰던 바위를, “예언의 바위”라고 명명했다.

산을 떠나기 전에 그 선교사들은 “박해의 시대에 왈도산 거주자의 찬송”을 불렀다. 이 노래의 가락은 피박해자들이 숨어 살고 있던 곳의 바위 틈과 동굴에 퍼졌다. 그래서 그것은 왈도 교도들이 산간 도로를 요새화 하기 위해 무기를 들라는 울부짖음으로 화했다. 이제 예언의 바위 위에선 세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감동을 주는 가사를 노래했다.

영광의 시온 세우신 하나님 찬양하세  
시온으로 말미암아 우릴 강하게 하시네  
주는 택한 이스라엘 자녀를 약

속 땅에 인도하시니

영광의 시온 세우주신 주를 찬양하세<sup>2</sup>

그후 어느 토요일 오후에 매드린의 아버지는 이웃집 굴뚝을 만 들어 주고 일찌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가족들에게 세명의 낯선 사람이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서 그들을 환영해야겠어”라고 했다.

그는 찾고 있던 사람을 주일날 아침에 발견했으며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이 꼬부랑길을 돌아 위험한 좁은 산길을 올라갈 때 매드린의 아버지는 딸이 수년 전에 꾸는 꿈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작은 바위 집에 도착했을 때 매드린은 포도밭 근처의 좁고 긴 초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들여다 보던 주일학교 책에서 눈을 들어 세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땅에서 나온 기이한 황금 책에 담겨진 메시지를 매드린의 백성에게 전하러 왔다고 말하고 매드린이 지금 이 책을 읽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에 매드린의 이웃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러고 왔다.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가 너무 진귀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세 선교사가 자기들에게 가져온 복음을 좀더 배우려고 밤을 새우기도 했다.

1850년 10월에 몇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 결국 스무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매드린의 꿈은 실현되어, 왈도 지역이 참으로,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지역이 되었다. ○

2. 말일성도 찬송가 232장

꿈 속에서 떨었던 것처럼 지금도 매드린은 기억해 내면서 놀래며 떨었다. 그러나 곧, 세명 중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음에 대해 말하려고 먼곳에서 왔단다.”고 말했을 때 평온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천사가 어느

소년에게 황금으로 된 지상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책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고 매드린에게 말했다. 그들은 언젠가는 매드린도 그 책을 읽게 될 것이며 그 책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에 기꺼이 들어가 갖은 고생을 견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뜻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부엌에서 매드린은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 꿈은 너무나 사실 같아서 그녀는 다시 창백해졌고 떨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염소 젖을 짜다가 들어오셔서 어머니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프냐?”

매드린은 다만 머리만을 흔들 수 밖엔 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그녀 곁에서 부드럽게 허리를 굽히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매드린에게 양말을 신기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매드린을 무릎에 앉히고는, “네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련?” 하고 조용히 물었다.

매드린은 끄떡였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몰랐으며 둘이서 서로 말이 시작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어머니는 무화과 열매, 감자, 염소 젖 등 간단한 아침 식사 준비를 마쳤으므로 그 꿈의 놀라운 대목을 다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도 열심히 들었고 지금 말한 것 이상으로 이해한다는 듯이 가끔 고개를 끄떡였다.

그날 밤 저녁 기도를 하려고 식구들이 모두 모였을 때 아버지는 우리 식구가 조그맣고 높은 북 이탈리아 알프스의 한 마을에 사는 이유를 또한번 말했다.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의

조상은 이 높은 산의 기슭에서 아름다운 계곡에다 집을 짓고 살았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시대에 살았던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모두들 소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했다. 왈도<sup>1)</sup>(알프스 계곡에 사는 사람이란 뜻)인들은 돌씩 짚지어 선교사도 보내었다.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에 개종하기도 했다.

그들의 성공에 대한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로마에서는 왈도 계곡에서 그들의 교회를 포기하고 로마 국교의 명령에 따르라는 전갈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왈도인은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대로 신약성서의 권위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고수했다.

교황인 이노센트 3세는 화가나서 왈도 교회의 회원을 모두 몰살하라는 포고령을 선포했다. 곧 그들이 살던 평화로운 계곡은 비극과 죽음으로 화해 버렸다. 바위마다 죽음의 장면이 표시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겨났다. 그들은 가파른 산을 오르고 또 올라 도피했다.

수년동안 믿을 수 없을만한 수난을 겪은 결과 왈도 교회에는 삼백명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알프스의 피드몬트 계곡 꼭대기에 정착했는데 그 계곡은 산허리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바위와 절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근근히 살아가기도 힘든 일이었다.

봄만 되면 여인들과 아이들은 가파른 산을 내려가서 흙을 바구니에 담아서 날랐는데, 그 흙은 겨울동안 폭풍에 씻겨내려온 밭이나 정원에 보충해 주어야 했던



1. 왈도—상인인 피터 왈도의 지도하에 남쪽 볼란서 지방에 근거를 두고 12세기 말에 비국교를 주장한 기독교 종파로 16세기에는 칸빈의 교리를 채택함.



● 매드린은 팔에다 옷을 걸쳐 들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아침 인사를 하려고 매드린을 바라 보았으나 매드린이 아주 창백하고 숨가빠하는 것을 보고는 “웬일이냐? 어디 아프니?” 하고 물었다.

“아니예요”라고 대답은 했으나

그 순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등이 없는 결상에 주저 앉아 발 아래에 깔린 양탄자를 유심히 보는 듯 했다. 그녀는 자기가 지금 막 꾸 이상한 꿈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고 말한 다 해도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 지를 몰랐다.

꿈에서 그녀는 포도원 가까이

있는 넓지 않은 풀밭에 앉아 있는 젊은 숙녀이었으며 염소가 그 포도밭을 짓밟거나 먹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을 때 자기 무릎에 주일학교 책이 놓여있는 것을 얼핏 내려다 보았다. 다시 한번 쳐다 보았을 때는 낯선 남자 셋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론 크로스비 그림

## 매드린의 꿈



# 리하이

● 위대한 도시 예루살렘은 흥분과 풍문으로 떠들썩했다. 유대왕 시드기아가 통치하던 첫 해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으나 주님의 예언자 예레미아는 백성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다.

리하이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예언의 의미를 알았다. 그의 장자인 레이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라고 말했으며 차자인 레뮤엘도, “물론 틀린 말이죠.”라고 대답했다. 리하이의 어린 아들들인 니파이와 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지시를 기다릴 뿐이었다.

리하이와 그의 아내 새라이아 그리고 아들 넷은 그때까지 예루살렘 땅에서 살고 있었다. 리하이는 굉장한 부자였다. 그는 상인이며 포도나무, 올리브 및 무화과 재배와 양봉에 전문가였으리라고 믿어진다. 그는 또한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유대 말과 이집트 말에 능통했다.

이제 그는 주께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했으며 주님께서는 리하이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 주시므로써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리하이는 기진맥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는 리하이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백성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당하게 될 멸망을 다시 보여 주셨다. 리하이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경고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리하이를 비웃었고 죽이려고 했다.

주님은 리하이에게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금은과 값진 물건을 많이 남겨둔 채 급히 집을 떠났다. 그는 오직 가족과 몇 가지 양식과 천막만 갖고 떠난 것이다.

그들은 사흘동안 여행했다. 그런 후 리하이는 넓은 계곡에 이르러 강가에다 천막을 쳤다. 여기다 그는 돌제단을 만들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큰 아들들인 레이먼과 레뮤엘은 감사하게 생

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께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을 꺼예요.” “훌륭한 집을 두고 이 광야로 오다니 아버지는 정말 어리석어요.”하고 투덜거렸다.

리하이는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는 바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주님의 영이 가득 차서 힘을 갖고 이야기했으므로 아들들이 몸을 떨었고 그리하여 잠잠히 아버지께 순종했다.

주님은 리하이에게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백성의 성스런 기록과 가족의 족보를 가져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들들이 여러 차례 기록을 가지러 갔을 때 어머니인 새라이아는 이들을 잃게 될까 두려워 했다.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왔을 때 새라이아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라고 말했다.

주님은 또다시 리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을 예루살렘에서 데려오라고 명하셨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후에 리하이의 아들들은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제 리하이는 명을 받았던 일을 모두 성취하였다. 주님은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날 여행을 계속하라고 하셨다. 리하이가 다음날 아침 장막에서 나왔을 때 땅에서 쇠로 만든 둥그렁고 기이한 공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 공 안에는 바늘이 두개 있었는데 한 쪽 바늘은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켰다. 리하이는 이 방향 구 혹은 나침판을 리아호나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주님의 인도”라는 뜻이 있다. 리아호나는 그들이 여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쪽으로 방향을 인도했다. 가족들이 식량을 원할 때 리하이는 주님께 간구했으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음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리아호나를 통해 알려 주셨다. 그들은 겸손했고 주님을 믿었으므로 리아호나가 그들을 인도하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리하이는 가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이다. ○

기가 포함된 선량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장을 갖추지 않고는 감히 밤에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사도들까지도 겐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종종 무장을 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을 주장하며 속박을 벗고 기아의 고통을 덜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띤 조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호전적으로 변하게 되고 혁명을 통해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중의 하나인 지룟트<sup>1</sup>는 그들이 추구했던 지도자의 상을 예수에게서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 수령이 되어 줄 것을 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는 당시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회악의 구조 기구로 지룟트의 운동을 거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가장 모범적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요 6 : 67—68)

예수께서는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지니셨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듣고자 갈릴리 바다까지 떠났던 오천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빵이나 옷이나 집에 있지는 않았습다. 대답은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도적 행위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 가장 비천한 시련을 겪은 사람은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나, 생활 철학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이해나 그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상태를 결정짓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며, 침체를 줄 수 있는 사도와 칠십인이 있는 교회의 확립을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는 개인 가운데서 생기는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개인의 변화는 정신의 변화에서 기인되며, 정신의 변화는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 지룟트 : 전통적인 유대인 생활 양식의 수호자이며 로마 통치의 반대자.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운동은 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뾰족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사도행전 4 : 32—35)

복음의 일부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한 변화는 주후 2세기에 살았던 저스틴 머터<sup>2</sup>의 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는 이제 순결한 도덕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때 마술의 기교에 빠졌던 우리들은 이제 영원하고 선량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한때 재물을 얻고, 이를 함부로 낭비해 버린 것을 자랑하던 우리들이 가난하고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한때 질투와 시기와 살인을 하던 우리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이방인과 공동의 고향을 갖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유없이 우리를 질투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예로운 교리에 따라 생활하여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오구스타 니엔다, 기독교 종교와 교회의 역사, 조셉 토레이 번역 11판[보스톤, 에이치 피이 호우톤 출판사 1871년] 1권 250페이지)

물론경에서 우리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데 주님의 복음이 다른 어떤 힘보다도 어떻게 강력한가를 증명해 주는 훌륭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입법이나 법령으로는 백성

2. 저스틴 머터 : 기독교 순교자. 플라톤 철학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를 순용함.

대한 사랑을 말하나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범죄나 부정을 퇴치할 수 없음을 안 엘마는 재판사의 직을 사임하고 개개인을 만나 선교 사업을 하므로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일을 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 그 때까지 그들이 겪은 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겸이나 그밖에 어떠한 것 보다도 더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침을 알았으니, 이로써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느니라.”(엘마서 31:5)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든 마을이 의롭게 변해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신 후 계속된 찬란했던 시기에 복음을 가르친 효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또한 저들은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유로웠고, 저들이 모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

“시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것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들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으니,”(니파이사서 3, 16)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프로그램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칙으로 사회악을 퇴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관심을 전혀 갖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복음의 정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런고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하면 만인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고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의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의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것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0-16)

교회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즉 재산 헌납의 법, 협동 교단, 십일조, 금식 헌금, 복지 계획 등으로 회원들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처해 왔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성도라면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에게 주는 식량과 의류의 지원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제일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은 말없이 전달되었지만 재앙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이웃들이 기꺼이 행해야 할 일시적인 도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영구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개인과 그들 내면의 사고와 자존심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개종시키는 일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먼저 개종자 자신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며 그 다음에 그의 열성과 정열을 활용하여 그의 새로운 삶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계획 즉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생활의 기쁨을 잃은 사람, 사회적 부정에 희생된 사람, 병든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책은 그리스도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구조의 손길을 뻗는 일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는 자기의 생애를 훌륭한 일을 위해 어떻게 바쳐야 할까를 주님께 간구했던 존 휘트머<sup>3</sup>의 말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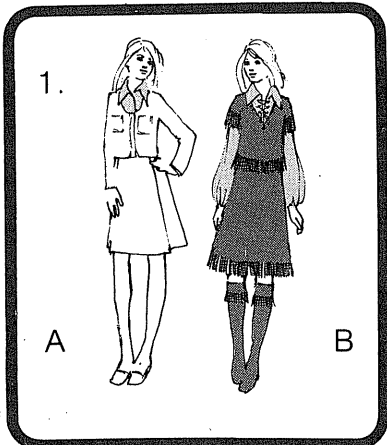
3. 휘트머, 존(1802~1829)·물론경 번역 때 서기의 일을 도움. 물론경의 여덟 목적자 중 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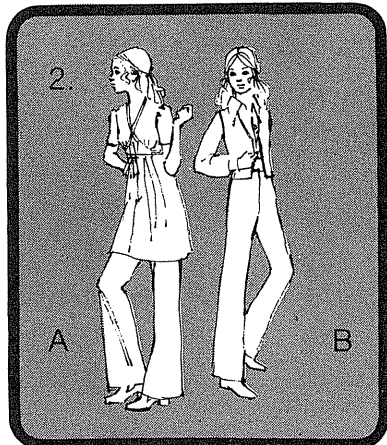
# 유행과 신앙

페기 호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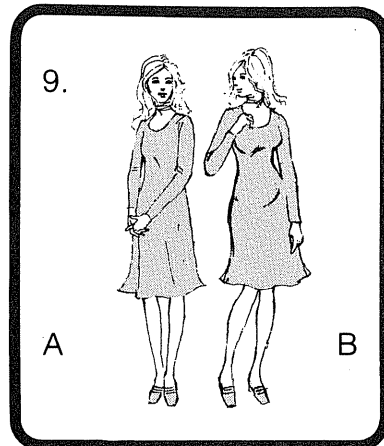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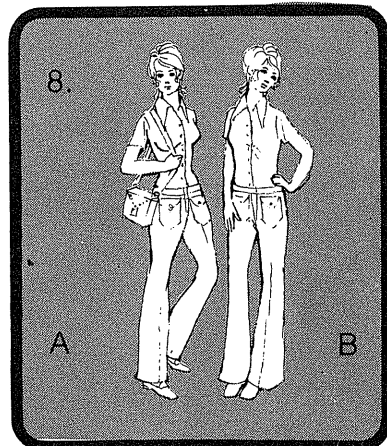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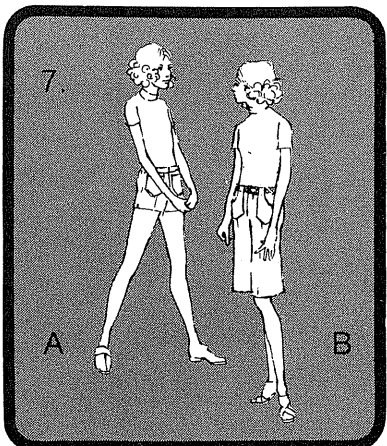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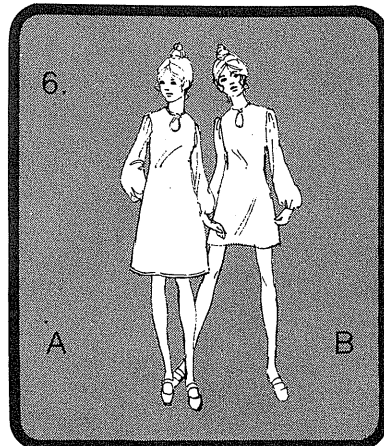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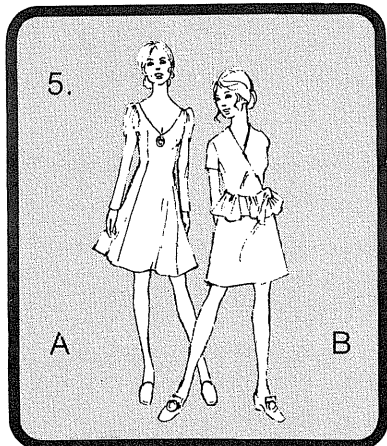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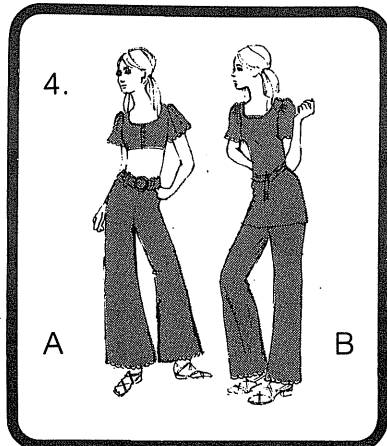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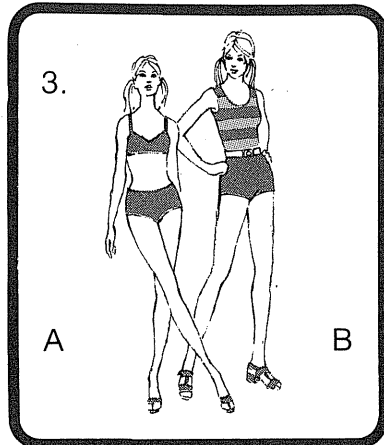
두개의 그림 중에 하나만 고르시오



교회에 입고 갈 복장



운동회에 입고 갈 복장



● 여러분이 얼마나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교회의 대관장이나 예언자는 복장이나 장식, 유행, 겸손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살펴봅시다.

다음은 교회의 2대 대관장님이신 부리감 영 형제가 복장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순수하지 않거



“여러분 자신의 유행을 창조하십시오. 여러분의 복장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만드십시오.”  
— 부리감 영 1848

나 의롭지 못한 유행을 따르지 말며, 마땅히 지녀야 할 복장의 표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행을 창조하십시오. 여러분의 복장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모자나, 햇빛을 가리는 부인모도 직접 만드십시오.....”

“나는 꼭 끼는 옷을 입은 숙녀들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만일 내가 여자였고 옷을 만들어 입을 천이 있었다면 나는 내 몸에 잘 어울리고 단정하게 만들어 입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행에 맞게 재단되었던 아니던 간에 습관이 곧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계시를 통해 겸소한 복장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입는 옷은 모두 겸소하게 하며 그 아름다움은 너희 손으로 만든 아름다움이 되게 하라.’ (교성 42: 40 참조) 그는

‘명주나 주단으로 리본을 만들지 말며 혹은 고급 면직물로 옷을 만들어 입지말라’고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나 다만 ‘너희가 입는 옷을 너희가 만들어 입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차 그러한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자매들에게 이르노니 복장을 좀 짧게 입으라는 것은 천을 너무 짧아서 우리가 양말의 목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구두의 목까지 내려오게 입어서 여러분이 걷거나 먼지를 털기 쉽게 하라는 것이며, 여러분의 속살을 내보이게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평범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며 엄격히 말해서 순결하게 행동을 하십시오.” (부리감 영 설교집 [데저렛 출판사 1941] 214~216 페이지)

다음의 글은 교회 6대 대관장인 요셉 에프 스미스가 당시 여러 교회 조직에서 발표한 결의문에 관한 것이다.

“결의문의 첫 부분은 신전을 다녀간 자매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자매들은 권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당한 복장의 착용에 관한 그들의 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의문의 마지막 조항은 신전을 다녀오지 않은 소녀와 부인에게 해당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복장 문제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별없이 유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소매 없는 옷을 입거나 극히 짧은 부인복과 스커트를 저녁 파티에까지 입고 와서 겸소한 남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장을 하는 습관은 어떤 특별한 단체에는 합당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말일성도 딸들이 그러한 복장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겠읍니다.

“야회복은 아름답고 입은 사람에게 어울려야 하나 불쾌한 인상을 주는 모

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옷은 어깨와 팔의 윗 부분을 가리고 앞 가슴을 V형이나 둥그렇게 너무 파지 말아야 하며 치마의 길이도 지나치게 짧아서는 안됩니다. 아름다우나 매우 얇아서 속이 비치는 천은 속을 완전히 가리는 속치마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부적당한 외출복이나 야회복을 입은 사람이 종종 눈에 뜨입니다. 극히 짧은 스커트나 앞 가슴을 깊이 관블라우스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천박성과 겸손한 마음이 결여된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얇은 실크나 투명한 옷감으로 만든 블라우스는 적당한 속옷을 입지 않을 경우엔 품위를 손상시켜줍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는 그 사회의 복장 형태에 큰 영향을 주는 재단사나 양재사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선택을 위해서 그들의 지원을 바라야 합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옷차림을 극단적으로 하면 더욱 매력적이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그러한 복장을 하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선량한 남성들은 정중하게 옷을 입은 여성을 찬미합니다. 1916년 청년 상향회 6월 대회의 역원 모임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도시나 혹은 온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끌기 위해서 노출을 하거나 반 정도만 가리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보다는 겸소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 몸을 가리려 하는 여성들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 남성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나혼자 사람을 판단합니다.’

“도처에 있는 남녀를 생각할 때 그들의 복장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겸손과 겸소의 이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뉴욕 시에서 있었던 최근의 어느 여성 집회에서 복장은 주요한 논제가 되었습니

다. 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성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복장으로 기꺼이 창조주께 가서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앞 가슴이 깊이 파진 블라우스나 시대의 유행에 가장 민감한 복장인 짧은 스커터트로 여러분의 인격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쓰고 계신 모자나 의복이 여러분의 사

도 보이므로 복장의 길이나 적합성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겸소한 복장의 표준에 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젊은이가 학교에 있거나 성찬식에 참석하거나 다른 교회 모임이나 무용, 체육, 운동 및 야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집에 있거나 집을 떠나 있거나 간에 교회의 표준은 젊은 남녀가 적합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요구한다. 겸소함은 교회 젊은이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며 그들이 깨끗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주님의 방법 중 하나이다.”

“소녀는 여성미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복장이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는 것으로 편안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예를 들면 스커터트는 적당한 길이를 유지해야 하며 너무나 꼭 끼지 말아야 한다. 목 부분이 지나치게 파인 옷도 적당하지 않다. 어깨끈이 없는 옷이나 스파게티 모양의 장식으로 줄 무늬를 놓은 복장은 평상복이나 야회복으로 적당하지 못하다. 어깨끈이 없거나 뒷부분을 가리지 않은 옷을 입은 여성이 품위있게 보일 리가 없다.

“집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하거나 야영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여성은 적당한 바지를 입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꼭 끼게 입어서는 안된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여자용 반바지 등은 그러한 활동을 위해 좋다. 물론 신전을 다녀온 사람은 모양이 적당한 옷을 입을 것이 기대된다. 집에서 입는 옷은 절대로 외출 때 착용해서는 안된다. 꼭 끼는 스웨터나 몸의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종류의 옷은 말일성도의 복장 표준에 어긋난다.”

지나치게 몸을 노출하는 수영복, 즉 비키니”나 몸의 가운데 부분을 노출하는 수영복은 착용하지 못한다. 수영복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름에 평상복으로는 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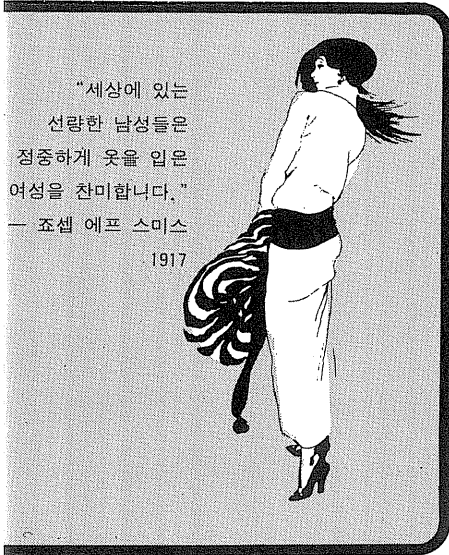
수 없으며 수영할 때만 입어야 한다. 수영장 근처나 바닷가를 거닐 때라도 젊은 남녀는 완전히 옷을 입거나 적어도 수영복을 가릴 수 있는 덧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지 130년이 지난 지금 복장의 형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옷의 길이는 몇 년에 걸쳐 변화해 왔지만 예언자께서 말씀하신 정신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신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스럽고 아름다워야 하며 일상적이고 보통 눈에 띄는 물건처럼 외부에 공개되거나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특별한 때를 위해 준비한 옷을 매일 입는다면 특별한 뜻을 잃게 됩니다. 왜 여러분은 열심히 돈을 저축해서 레코드판을 사거나 맥주를 마시는데 써버리지 않고 자전거나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까? 왜 영화를 즐길 수 있는데 더 열심히 일해서 피아노를 배우려고 노력합니까? 왜 딸기는 제 철에만 자랍니다? 왜 봄만 늘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자동차를 산다면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아노 앞에 앉아서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훌륭히 연주할 수 있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딸기를 먹을 수 있다면 곧 싫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없다면 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역시 적절하게 가리워지거나 보호되지 않는다면 구두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설명은 최근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에 의해 공인된 여성 복장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자기는 물론 친척, 친구, 동료들을 당황하게 하지 않을 겸소한 복장의 표준을 지킬

2. 프란츠 리스트(1811~1886) : 헝가리인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



“세상에 있는 선량한 남성들은 정중하게 옷을 입은 여성을 찬미합니다.”  
— 조셉 에프 스미스  
1917

러 깊은 예지를 나타내 줍니까?”

훌륭한 여성이라면 자신이 창조한 유행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초라하거나 이상한 옷차림을 원치 않으며 여성의 복장은 그녀의 인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일성도 여성은 그러한 복장을 하는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역원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합당한 표준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책임이 각 역원이나 교사에게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서 최고의 겸소한 표준에 미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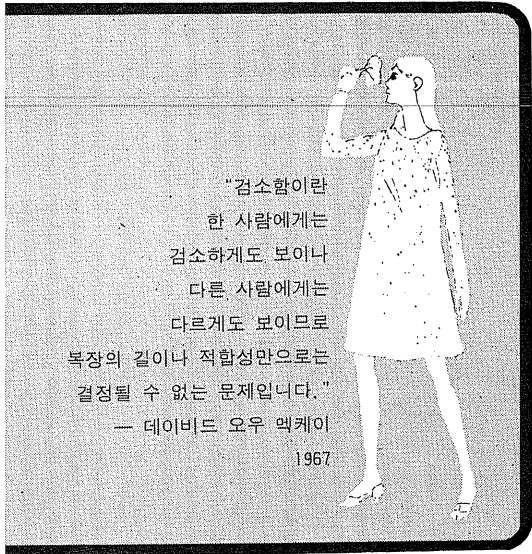
백케이 대관장과 그의 보좌가 확립한 표준은 “젊은이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에 잘 설명되어 있다.

겸소함이란 한 사람에게는 겸소하게도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1. 비키니 : 아주 짧은 투피스 수영복.

것을 권고해 왔다.

“우리는 회원들이 신전을 방문할 때는 바지나 미니 스커트나 그외에 합당하지 못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라고 권고해 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교회 집회에 참석할 때는 이와 똑같은 지시를 줄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주님의 전당에 와 있으며 이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라는 바이다.”



여러분은 몇인치짜리 옷이나 무슨 종류의 수영복을 입으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사항에까지 일일이 말을 들어야 한다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권고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커트 자락이 일인치가 길거나 짧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이나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정신적인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운동 경기에서 일점을 잃었다고 해서 옷을 벗어버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행에 맞게 만들어졌던지 아니면지 곧 습관이 그것을 아름답게 해 줄 것입니다.”

만일 검소한 미디나 맥시가 여러분

에게 어울린다면 그것을 만들거나 구해서 입으십시오. 가능한한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복장은 여러분의 가치나 외모나 인품을 반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년전 유행복 담당자로서 캘리포니아주의 한 상점에서 일할 때 나는 내가 만든 스커트에 관해 여러 사람의 반응을 주시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에 찬사를 보내 왔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그것을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치마 자락을 짧게 울리지 않느냐고 항의도 해왔습니다. 유행이라는 문제를 놓고 나는 다만 여러분이 자신에 맞는 것을 창조하라고 밖엔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입은 옷을 스스로 만들었으며 매개의 경우 표준과는 좀 다르지만 나의 개성을 표현하였고 그래서 입기에 아주 편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영적인 가치와 전혀 거리가 먼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복장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습니까?

복장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옷을 만드는 데 모든 시간을 소비하거나, 돈을 벌어서 모두 옷을 사는데 사용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장을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표준에 맞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그림 :

- 1 (A) B                    6 (A) B
- 2 A (B)                    7 A (B)
- 3 A (B)                    8 A (B)
- 4 A (B)                    9 (A) B
- 5 A (B)

1. B는 너무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사나 봉사 정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여러분의 복장을 쳐다볼 것이다.

2. A는 만든 옷감이나 장식에 따라 정식 무도회나 가정에서의 오락 모임에 보

다 적합한 복장이다.

3. 지나치게 노출하는 수영복, 즉 비키니나 몸의 가운데 부분을 드러내는 수영복은 삼가해야 한다. (대관장단, 1967년)

4-5. 몸의 부분이 노출되거나 가슴을 V형으로 지나치게 판 옷은 너무 자극적이다.

6-7. 짧은 스커트가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낼 수 있을까? (대관장단; 1917년)

8-9. “꼭 끼는 옷을 입어 몸의 윤곽이 드러난 모습을 보기란 민망스러울 정도다.”(브리감 영) “꼭 끼는 스웨터나 그외 몸의 윤곽을 들어 내는 옷은 말일성도의 복장 표준에 어긋난다.” (대관장단, 1967년)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옷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미대륙에 오시기 90년 전 니파이인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그들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값진 의복은 아니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었느니라.”(엘 1: 27)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으나 팔년 만에 “교회 회원들이 저들이 힘써 일해 얻은 엄청난 부와 값진 비단과 잘 짠 세마포와 풍성한 양떼와 가축과 온갖 금은 보화로 인하여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으니, 이러한 물건들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져 저들은 참으로 값진 의복으로 치장하기 시작하였더라.”(엘 4: 6)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헐뜯기 시작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딤후 2: 9-10)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나”(고전 7: 31) 이러한 표준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유타 주립 대학 카렌 에스 크리스찬슨의 석사 논문에서 발췌한 것임.



# 질의 응답

“저희 학교 사회 생태학과 반원은 오늘날과 같이 인구 과잉 상태가 되어서 세상이 극도로 퇴폐되어가고 있는 때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자녀를 두명 이상 두는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행위가 이기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련된 사람들의 동기와 가치관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사회학이나 사회 과학 시간에 종족 중심주의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기를 바란다. 종족 중심주의란 어떤 인간의 집단이 자기들의 가치관 만이 옳고 합당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은 옳지 못하고 악한 것이고 더욱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말이다.

“자녀를 두명 이상 두는 사람은 욕심장이다”라는 말은 이 종족 중심주의의 전형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이 말에 따르면 분명히 두명 이상의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아마 이외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사고 방식이 교사나 많은 반원의 사고와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당신 반원의 관점에서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어떤 관리가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 안전 운동을 전개한다. 의사가 나이가 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병마와 싸운다. 간호원이 조산아나 병든 아기를 구하려고 애쓴다. 군인이 무기력한 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는다. 사회 사업가가 위생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빈민가의 유아 사망율을 줄이려고 봉사한다.

이 모든 예는 인간은 누구나 중요하며 개인의 생명은 인구 과잉의 방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위의 예에

서 나온 사람들은 보다 높은 가치에 대한 신념 때문에 인구의 수를 유지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이를 증가시키고 있음으로써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 크레인<sup>1</sup>은 이러한 시를 쓴 적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라……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두꺼비이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두꺼비가 되리라.” 인구 증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귄 때 그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문제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양보하고 두꺼비라는 표시를 달아야 한다. 복음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어려운 일이다.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라는 당신의 질문에 쉬운 답을 드리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간단히 말한다면 당신이 설정한 가치관과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당신이 이웃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녀의 아름다움을 믿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당신의 가치관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족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자녀를 가정에 둘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대신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막는 사람이거나 그 수를 극히 제한하는 사람도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

문제는 퇴폐와 인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사회는 퇴폐에 관한 문제를 무시해 왔고 목전의 이익을 극도로 중시하나 장기적인 퇴폐의 관점에서 볼 때 사치스런 일들을 많이 해 왔다. 그러나 사회 조직 속에서 사회가 퇴폐를 감소시키거나 더 나아가 퇴폐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큰 변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수에 대한 문제를 비난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퇴폐는 인구의 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생활 방식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 생태학이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되자 인구 증가 반대론자들은 그들의 논쟁점을 쉽게 바꾸어 놓았다. 당신은 자주 우리들이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만다고 주장하던 논쟁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 “녹색 혁명”이 일어나 이 지구는 현재 인구의 수십배를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러한 논쟁은 두 세번째로 물러나고 퇴폐와 집단 문제가 논쟁의 첫번째 대상으로 등장했다.

1. 크레인, 스티븐(1871-1900)—미국 시인. “용기의 붉은 배지”의 저자.

생활의 표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으로 생각되던 때는 가족의 문제를 종종 깊이 생각하던 부모가 자녀와 물질적인 이익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지각있게 처리하였다.

그 당시 일부 사람들은 가치관과 비이기적인 선택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척 쉬워졌다. 인구와 사회 생태학의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유물주의를 추구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서슴치 않고 인간애를 존속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린가!

아무도 최적 인구가 얼마인지를 모른다. 최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받드



시 가치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적 조건을 계산하는데 과학이 가치관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당신의 가치관의 하나가 가능한 많이 굶주림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즉 굶는 것 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생각할 경우 당신은 인생이란 가능한 많은 인간이 함께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보다 매우 판이한 최적 상태의 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가치관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면 그리고 “행복”이라는 의미를 꼼꼼히 생각해보는다면 당신은 또 다른 최적 상태의 수를 가질 수 있다. 인구 과잉에 관한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왜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가치관은 좀체로 없으며 만약 있다면 특정한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인구 억제론자들의 과장된 연설에 감명을 받고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가치관과 가정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반대된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남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

오늘날 인구 과잉설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이 세대에서 가장 잘 받아들여진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극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거나 과잉, 파소 또는 최적의 인구 수를 정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물어 보며 애태우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신에게 있어서는 가치관을 설정하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그 가치관은 인간이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분명하게 생각해보자. 복음은 영원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인생은 단 한번 밖에 없는 것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인간이 지상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육체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육체를 받고 지상 생활을 영위하는 기회는 영생을 향한 개인 발전의 결정적인 단계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을 누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지상 생활은 일시적인 것이며 분명히 여러 가지 제한—세 가지 면, 즉 죽음, 처음과 끝,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현세를 넘어선 세계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나무, 강, 공기, 들, 지구, 나아가서는 다른 세상까지도 모두 인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인간이 이것들을 위해 창조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나의 사업이요 영광”(모세서 1:39)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인간이 이러한 창조물을 마구 다루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생명의 형태를 가진 모든 것과 자연계의 기적과 같은 복잡한 현상에 대한 깊은 경외심은 기독교인의 생활의 한 특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권은 변함이 없다. 즉 인간이 나무, 숲, 국립 공원, 나아가서는 지상의 모든 부귀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에 비추어 “아기 오염”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 반대가 아니다. 인간과 지구라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보다는 인간이 활용하기 위한 지구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순위는 명백하다. 즉 가능한 우리의 영원한 종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상 생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만일 지상의 생활이 배움의 기간이라면 우리는 모두 자신을 가다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배움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배움의 이점이 어떤 특정한 인간이나 소유지에 대한 유지에 달려 있지 않고 각 가족의 농장에 들어오는 수입에도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집, 냉장고, 차 이러한

것들은 지상에서 훌륭한 경험을 얻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다.

인간을 우연한 우주의 존재인 하등 동물의 생명체에서 생긴 후손이라고 보는 사람과 삶이란 덧없고 비천하며 목적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에는 아마 그들 자신과 그들 후손의 세상이 가능한 한 즐겁고 안이하게 되어야 한다고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이 많건 적건 또는 전혀 없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또 지구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지상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얻는 것은 물론 육체를 얻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소위 이러한 문제의 일부는 생명을 부여하는 목표로 변하게 된다. 급우와 교사가 당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서로 나누거나 기꺼이 존중하지 않는 한 당신은 인구 문제나 사회 생태학에 관한 문제에 그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당신의 견해와 그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설명하면 그들은 저렇게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과의 차이는 근본적이고 심각한 것이라는 나의 말을 믿기를 바란다. 당신과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인구 문제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이 무엇이며 그는 어떠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여하간 당신은 인간 사회의 당면 문제는 인구 때문이 아니라 사회 조직의 부패와 비능률성에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전문가는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인 남녀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자녀를 태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환경의 공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구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고 사회가 심하게 오염되었고 조직이 빈약하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우리는 만일 당신이 인간 가족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친다면 그들은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질과 양에서 훌륭한 인간 생활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끝으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을 몇 개 적어 볼까 한다. 장소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에게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주민이 살지 않는 곳이거나 또는 주민이 거의 살고 있지 아니한 곳이라는 것을 지적하여 준다. 우리는 모든 자원을 서로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모두 함께 지구의 미개간 지역을 개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여도 장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말해서 일부 인구 계획이 독자에게 무한한 인구 증가가 바

로 목전에 다가왔다고 생각하게 해 준다면, 수중 도시, 수상 도시, 또 공중 도시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십여년 전의 과학적인 공상이 현재에 와서는 사실로 실현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이야기가 실현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인간은 그들의 생활 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지나치게 문화적 사고 방식에 젖어 있다. 그래도 만일 질문자가 지구가 너무 적다고 하면 태양계와 우주의 무한한 공간이 개척 후보지로 남아 있다는 것과 그러나 이러한 공간 정복 작업은 지상에 사람들이 산재하여 거주할 수 있는 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힘든 목표라는 것을 알려 준다. 간단히 말하면 장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신에게 재론할 수 없도록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부족한 요소는 지혜, 창조력 그리고 근면성이다.

식량이 모자란다고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결핍이나 생산화할 자료의 부족으로 모든 땅을 식량 재배를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땅은 인간이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또한 수경법, 수중 농업 그리고 화학 식료품 개발에서 많은 나라들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끝으로 식량이 음식 준비, 분배 그리고 저장 과정에서 엄청나게 낭비되고 변질되어 먹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한다. 식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통 과정과 국제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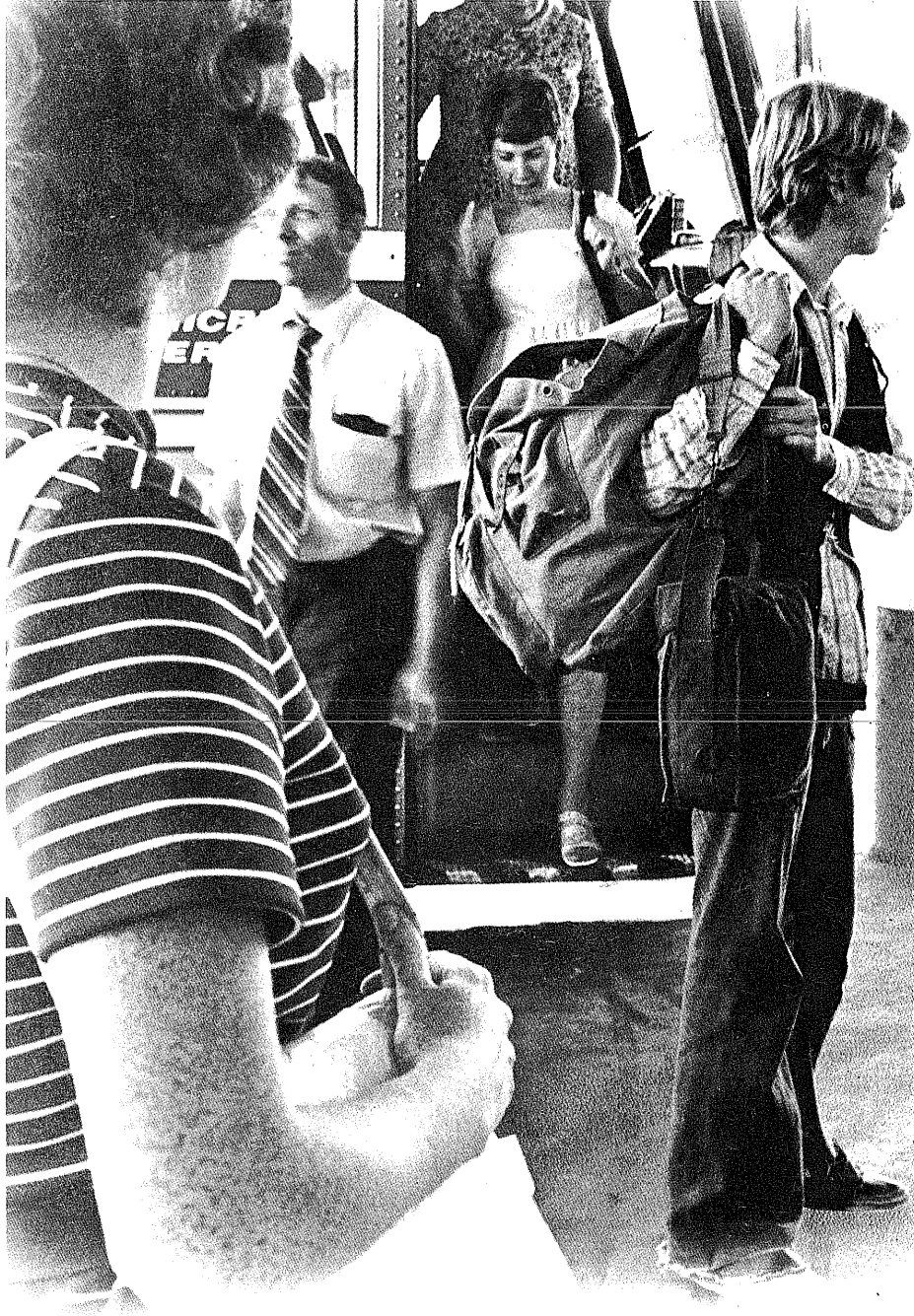
식량이 문제가 안되고 장소도 문제가 안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적당하고 충분한 장소가 없는 것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생활하기에 충분한 넓은 지역을 만들면 된다. 그것은 가능한 문제다. 교외로 캠핑이나 피크닉을 갈 장소를 갖는 것과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린이들을 택하겠다.

그러므로 종족 중심주의자들은—부르기 쉽게 불인 명칭—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구세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박해의 한 가지 형태로는 가족 반대론을 주장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가족을 수호하기 위해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당신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틀린다는 사실을 마음 속에 새겨 두어야 한다. 당신 친구의 가치관과 일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기 바란다. 말일성도인 당신은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점에서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말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

하워드 엠 바하르  
워싱턴 주립대학 사회학 조교수.



단편 소설

#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매리 에크 노울스

● 버스가 와튼 정거장에 들어서자 조 앤더슨은 창밖으로 할머니를 찾았다. 마르고 아주머니가 그에게 한 말이 기억났다. “내가 널 십년 동안 키웠지만 이제 너도 열 여섯 살이 되었으니 벤과 헤어져 살아야 되겠다. 앤더슨 할머니가 널 키워야 될꺼야.”

벤 트레스키는 마르고 아주머니의 새 남편이었다. 처음부터 그는 조를 내어쫓을 구실만을 찾았다. 벤으로부터 “이 머리카락만 긴 벌레같은 놈”이라고 욕을 먹은 후부터 조는 머리를 길렀고 요란스런 옷을 입었고 짙은 세베이지와 사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자

벤은 “꼴보기 싫으니 나가 죽어라”하며 소리를 쳤던 노울스 자매는 세 자녀의 어머니로 오그덴 스테이크 17와드에 참석하는 훌륭한 작가이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는 친할머니와 같이 살려고 와튼에 온 것이다. 잠시 동안 그는 공상을 했다. 할머니는 그를 반가워할 것이고, 생활은 엄마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여섯 살 때와 같은 편안한 나날이 될 것이라고.

버스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멈췄다. 그는 카키색 가방을 들고 내렸다. 할머니는 그를 반가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근 10년 동안이나 할머니는 그가 살아 있는지 없는지 조차 전혀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자기의 긴 머리를 한번 쳐다 보고는 눈길을 돌릴 것이다. 내가 할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 물론 할머니도 장례식에는 오셨을 것이다. 그는 할머니가

키가 크고 갈색 눈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감싸 안아주셔서 슬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졌던 것이 생각났다.

그의 갈색 눈은 군중을 살펴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환영하는 미소 면 얼굴은 없었다. 불안해졌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 보았다. 그는 할머니에게도 말잡지 않은 존재였다. 그러나 짙 세베이지가 알고 있는 주조라곤 할머니집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짙이 할머니 집으로 오면 그들은 함께 큰 도시로 빠져나가서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가끔 짙은 조를 놀라게 했다. 그의 본심은 그에게서 멀리 떠나라고 경고해 주지만 마르고 아주머니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를 나눌 상대는 짙 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셉!” 하고 소리나는 방향으로 그는 몸을 돌렸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키에 머리가 하얗게 된 은화한 갈색 눈의 할머니를 보았다.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는 우리가 규칙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신 말이 생각났다. 이 작고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규칙을 지키게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키가 크지 않았다. 그때 그는 자기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조그만 어린 아이였었다는 것을 생각해 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나 굉장히 컸구나. 그러나 난 어디에서도 널 알아볼 수 있지. 내가 키스를 할 수 있게 몸을 숙여다오.”

그 키스는 애정이 담복 담긴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가슴은 벽찬 희망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때 마르고 아주머니가 “앤더슨 가족들은 모두 이중 인격자야”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자 가방을 이리다오 조셉.”

“이것 뿐이에요. 짐은 나중에 올거예요.”

“그래, 그럼 집으로 가자. 여기서 별로 멀지 않다. 오늘따라 날씨가 무척 좋구나.”

둘이 길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어떤 남자와 부딪혔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은 조를 보더니 싱긋 웃으며 말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숙녀님들” 조는 한대 후려쳐 버리고 싶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에, 남자야 여자야 저 긴 곱슬 머리좀 봐.”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벌레같은 촌놈 같으니! 빨리 짙이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는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으신 표정이었다. 집에 가서 야단칠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길을 가면서 할머니는 공원, 재판소 같은 재미있는 곳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들며 마셨다. 멀리있는 산의 위엄을 그대로 들며 마시는 것 같았다.

“마을 저 쪽에 있는 저 새 학교 있지 않니? 그곳이 네가 너의 사촌 에드워드와 같이 다닐 학교란다. 참 일요일 저녁엔 친척들이 모두 너를 만나러 오기로 되어 있단다. 아 피크 형제님 안녕하세요? 애가 주스틴의 아들이랍니다.”

그들은 “피크네 약국”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달린 가게 앞에서 멈추었다. 머리가 하얗게 된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주스틴의 아들이냐! 너의 아버진 우리 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곤 했었지. 널 보니 네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나. 이곳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 예정이냐? 으음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이 하나 필요한테 우리 집에서 일해 주겠니?”

“네, 하고 말고요” 대답하고 나서 그는 얼핏 자기 외모를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금 찜은 짝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잘 됐다. 월요일에 오거라. 그때 할 일을 알려주마.”

“감사합니다.” 그때 부터의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그런데 참 할머니, 그 사람은 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앤더슨 가를 잘 알고 있단다. 우리는 정직하기로 이름나 있어요.”

그들은 큰 붉은 벽돌 집 앞에서 멈추었다. 지난 날의 기억이 그에게 밀려 닳았다. 이곳은 그가 오래 전



에 아빠 엄마와 같이 살던 곳이었다. 그는 새로운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 차를 타고 가던 한 배의 소년들이 “어이 갈색 머리의 아가씨 데이트나 한번 할까?” 라고 야유를 하며 지나 갔다.

조는 몸을 돌려 할머니를 쳐다보며 “할머니 난 머리 안 짝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언제 너 보고 머리 짝으라고 하던. 조셉” “아뇨” 그는 무안해서 머리를 긁적거렸다. “네가 머리를 기르는 건 네 마음이지. 그러나—”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뒤로 쓰다듬어 넘기시며 “이렇게 잘 생각하고 중요한 이마를 가리는 건 좀 안됐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 라고 하셨다.

맛있는 냄새가 그를 받쳐 주었다. 그는 배가 고파 창자가 뒤틀릴 지경이었다.

“넌 아버지가 쓰던 옛날 방을 써야 한다. 이쪽으

로 오너라. 죠셉.”

책상과 등이 있는 크고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다. “자 몸을 씻어라. 심분이면 점심이 될테니까.”

그는 벽에 걸려 있는 상패를 보았다. 외톤 고등학교에서 받은 것이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는 다시 학교에 갈 기회가 없었다. 이 방은 그의 아버지 방이었다. 갑자기 그는 따뜻한 팔이 자기의 어깨를 감싸주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는 “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버지”하고 그는 조용히 불러 보았다. 눈물이 주르루 그의 뺨을 흘러내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목욕탕 거울 앞으로 다가 섰다. 휴우—! 마치 산 속에서 사는 사람같은 그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그는 머리 카락을 뒤로 제쳐 보았다. 그곳에는 희고 잘 생긴 이마가 나타났다.

“죠셉아 준비됐다. 오너라.” 할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났다.

마치 잔치집 같은 상이 차려져 있었다. 우선 앞에 있는 것을 덮석 집어 먹으려는데 할머니의 말소리가 그를 가로막았다. “죠셉, 음식 축복 기도를 해주겠니?”

그는 기도라곤 몰랐다. 그런데 할머니는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음식 축복 기도의 기억이 그를 구해 주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가며 그는 계속했다. “이 음식으로 저희들이 영양을 얻고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차게 당신의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죠셉 그건 너의 아버지가 하던 기도였단다. 다시 너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니 참으로 기쁘구나.”

그는 이제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왜 편지를 안하셨을까? 그러면서도 그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급하게 이것 저것 마구 먹었다. 드디어 배가 불렀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렇게 조금 밖에 안 먹는지 알 수가 없었다.

“죠셉 내가 잠깐 쉬었다가 설거지를 할께. 그리고 같이 사진첩을 보자꾸나.” 그가 다 먹고 난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신 후 죠는 마루로 나갔다. 산보를 가고 싶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다. 할머니에게 어디로 가는지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할머니 방으로 가까이 갔다. 누비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는 할머니가 몹시 작아 보였다. 불현듯 그는 할머니를 보호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현관으로 돌아 나왔다.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 사람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잔디는 나중에 짊기로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상 위에 있는 접시를 하나씩 닦기 시작했다. 할머니를 놀라게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에서 작은 소리로 휘파람을 불며 접시를 깨끗하게 다 닦아 놓았다.

“아니 죠셉, 접시를 다 닦아 놓았구나.”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그렇게 너의 아버지와 똑같으나.”

그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해 돈을 벌면 저축해서 자동차를 살게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여기 저기 구경 시켜 드릴게요.” 잠시 그는 집에 대하여는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죠셉아, 우린 이미 차가 있단다. 오래전부터 쓰질 않았고 또 고칠 수도 없어서 그냥 두었던 것이란다. 너의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타고 다니시던 거지.”

“차가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이리 오렴. 저기 차고에 있지. 1924년도 형인데 처음 나왔을 땐 아주 근사한 차였어.”

죠는 차고로 들어가 차를 덮어둔 것을 벗겨내고 세단 앞에 섰다. “뒷 좌석을 고치려고 했군요.”

“그래 할아버지께서 새로 갈려고 했었지. 바로 그때 병이 드셨단다.”

“내일 내가 고쳐 볼까요?”

“이 차를 네가 가져도 돼요. 아마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거다.”

그날 저녁은 마음이 들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웅웅하는 소리에 선 잠이 깼다. 할머니가 무겁고 낮은 낮으로 잔디를 깔고 계셨다. “할머니 그만 두세요. 할머니 그런 일을 하시기엔 너무 늙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원망스런듯이 그를 쳐다 보았다. “저어— 내 말은 내가 잔디 깔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었어요. 먼저 잔디를 깔고 나중에 차를 고치겠어요.”

그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할머니에게서 낮을 뻗었다. 잔디를 깔는데 긴머리가 자꾸 흘러내려 눈을 가리웠다. “할머니 머리카락 조금만 잘라 주시겠어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잘라 주구 말구.”

그가 거울 앞에 앉자 할머니는 “너의 아버지 머리도 내가 깎아 주곤 했지.” 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아버지질 닮았나요?” 라고 그가 물었다.

“그럼 넌 아버지가 생각나니?”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 주던 기억이나요. 또 아버



지와 어머니가 함께 웃으시던 기억도요.” 다시 그는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마르고 아주머니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다.

“너희 아버지 우릴 배어 놓으려고 했단다. 그는 너의 어머니와 나 사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어. 너의 아버지가 차를 마구 몰아 너의 어머니를 죽인거란다.”라고 마르고 아주머니가 말하던 것이 생각났다.

“됐어요, 할머니 그만.” 그는 마음 아픈 기억이 자기를 그만 괴롭히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거울을 드러다보며 자기가 아버지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루 종일 차에서 일했다. 일찍 저녁을 먹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가스라 그외에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왔다. 드디어 그는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잠시 발동을 걸어주세요. 그동안 제가……”

“그래! 난 발동을 걸 줄 알지”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고 뺨에는 화색이 돌았다.

고물 차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거의 밤 열시가 되어서였다.

“됐어요, 할머니. 우리가 차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 네가 했지. 놀랍다, 놀라워.”

“내일 제일 먼저 할머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시켜드릴게요.”

“음 내일 성찬이 끝난 다음 저녁 때 좀 하자꾸나. 오후에는 친척들이 찾아 올테니까!”

그는 침대 속에서 흰 옷과 검은 바지가 있는 것을 보았다.

“너한테 맞아야 할텐데.”

“전 입고 있는 옷이 좋아요.”

“그것은 좀 요란하구나. 넌 설마 그 옷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겠지?”

“네 그래요 할머니.” 그는 짙이 이런 고리타분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자기를 보지 말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짙에게 보이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주일학교에서 그는 “오 높은 영광 보좌”를 함께 부를 때 듣고만 있었다. 그는 가사를 읽었다 “오 높은 영광 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내 언제나 다시 돌아가 아버지 얼굴 뵈오리까?……귀하야라 당신의 슬하. 내 영이 처음 컸던 곳……당신이 이몸 여기에 놓은 현명한 목적 아나이다.……당신께서 하라신 과업 불초 내가 다할 때 당신 곁에서 함께 살라 허락하여 주소서.”

그의 가슴은 희망에 부풀었다. 여기 그가 궁금히 여기던 내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다.

오후 한 시에 아버지의 친척들이 도착했다. 그는 오랫동안 무관심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따로 떨어져 있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사랑에 포로가 되었다. 그는 그곳에 온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려 했지만 어려운 일이었다. 할머니가 “너의 사촌 에드워드란다. 나이가 같아요.”라고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안녕 죠” 에드워드는 악수를 하며 웃음을 보냈다. 그는 키가 컸다. 그리고 검은 머리 카락이 목에 내려오도록 기르고 있었지만 단정하게 빗었다. “앞으로 재미있게 지내자.”

“그래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는 사촌을 대단히 친숙하게 느끼게 되었다. 점심을 먹은 후 그는 “같이 뒤로 나가자, 내가 뭘 좀 보여 줄게.” 그는 차



고에 가서 차를 보여 주었다.

“할머니가 이 차를 잘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잠깐 기다려, 가서 열쇠를 가지고 올게.”

신이 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 안에서 나는 소리가 그를 주춤하게 했다. “운전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 “책임은 지기에는 아직……”

“할머니 우리 말을 들어야 해요.”

그들은 자기를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마르고 아주머니가 울었어. 그들은 위선자들야. 그는 돌아서서 차고로 갔다.

“열쇠 가지고 왔니?” 라고 에드워드가 물었다.

“지금은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는 발길을 돌려 밖으로 걸어 나갔다.

“기다려 같이 가자.”

“난 혼자 있고 싶단 말야.”

그는 공원 의자에 주저 앉았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그는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가 돌아온 때는 킁킁한 저녁이었다. 할머니가 문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조셉아, 왜 그러니?”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야기 해주렴.”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 안개 속을 헤매는 꿈을 꾸었다. 그는 벽을 긁는 소리에 잠이 깼다. 짙이 그의 긴 머리 카락을 어깨 위로 늘어 뜨리고 달빛 속에서 있었다. “짙, 네가 왔구나!” “그래 꼬마야. 내가 오겠다고 했잖아. 오다가 보니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돈이 많아 보이는 약국이 있던데 가서 슬쩍 해 가지고 팔면 한 밀천 잠을 수 있을 것 같더라.”

피크네 약국! 그가 월요일부터 일하기로 되어 있는 그 약국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시골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단 말야.” 짚은 들이서 할 일을 그럴듯하게 꾸며대었다. “여기서 나가는 건 문제가 아냐. 그러나 도둑질을 하는 건 반대야.” 앤더슨 가문에선 나를 받아들이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버지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다.

“자 어서 나와, 곧 날이 밝는단 말야!”

그는 방안을 둘러 보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창을 넘어 나가려는 순간 역센 손이 그의 옷을 잡고 뒤로 잡아 끌었다. 그는 달빛 속에서 할머니를 보았다. “내 손자 중에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 나간 사람은 없어요. 짚 나의 손자를 보려고 왔거던 밝은 날 정문으로 들어 와.”

“쥬! 늙은이의 말에 상관할 필요없어.”라는 짚의 야비한 소리가 들려 왔다.

“이 분이 나의 할머니야 쥬!”

“알아, 난 늙은인 질색이야. 자 얼른 나와!” 그 순간 쥬는 처음으로 짚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었다.

“쥬 너 우리 할머니 말씀 못 들었어? 썩 없어져!”

짚은 등을 돌리고 사라져 버렸다

“자, 착한 애야, 내 방으로 들어오렴. 승리자의 걸음걸이로.”

그제서야 쥬는 할머니가 어떻게 키가 큰 그의 아들들이 규칙을 지키게 만들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 오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앞서 걸어 갔다.

침실에 들어가서 그녀는 쥬를 마주 쳐다보면서 “자, 이제 왜 나갔었는가를 말해 보렴.”하고 말했다.

“내가 나갔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여섯 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배운 것이 있단다. 난……” 갑자기 할머니는 경련을 일으켰다. “저기 있는 병에 들은 약을 두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호흡을 제대로 못하였다.

그는 병에서 약을 꺼내 드렸다. 할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는 기도했다. “제발 할머니를 살려 주세요. 만일 내가 시간만 더 있으면……”

잠시 후 할머니가 눈을 뜨셨다.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러나 다른 가족들에게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들은 오늘도 나에게 ‘이젠 여든이 넘으셨어요. 이 집을 운영하시기에 벅차십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날 꽃도 키울 수 없는 아파트에 가두어 넣으려고 한단다.”

이제야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난 그들에게 이제 죠셉과 같이 있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지. 그렇지 않니? 난 너와 같이 있지.”

지난 날 쓰라렸던 과거가 다시 그에게 휘몰아쳐 왔다. “그러나 그전엔 저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무슨 소릴 하고 있니?”

그는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알려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오 죠셉, 내 손자야. 내가 너에게 편지를 얼마

나 보냈대구. 선물도 보냈었던단다. 그러나 모두 되돌아 왔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었을 때 난 너를 다시 데려 오려고 했었지. 그러나 너의 아주머니가 이제 자기가 널 키워도 될만큼 너의 어머니가 너와 같이 살았으니 넌 자기가 키워야겠다고 했단다. 난 더 머물면서 싸우려고 했지, 그러나 그때 너의 할아버지께서 병으로 대단히 위독하셨단다. 난 집으로 돌아와야 했었지. 그후 난 너의 아주머니의 주소를 통 알 수가 없었던거다. 주소도 알리지 않고 이사를 가 버렸거든.”

쥬는 그들이 자주 이사를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마르코가 널 다시 나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을 때 난 정말 기뻐서 울었던단다.”

“그러면 왜 마르코 아주머니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에 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는지 모르겠군요.”

“죠셉아, 잘 들어 보아라. 불행이란 참혹한 것이란다. 너의 어머니와 마르코 아주머니는 쌍둥이였지. 너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결혼했을 때 너의 아주머니 마르코는 교회와 너의 아버지를 비난했단다. 그 도가 점점 심해갔지. 그 사고만 해도 너의 아버지가 잘못이 아니었지, 땅이 얼어서 차가 말을 안 들었던거야. 그렇다고 아주머니를 욕하지 마라.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럼 할머니는 날 좋아 했었군요. 정말 그랬었군요!”

“그럼! 정말 얼마나 널 그리워 했는지 모른다. 죠셉, 이제 넌 여기서 에드워드와 같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아베요, 전 갈 수 없어요. 너무 처졌는걸요. 너무 늦었어요.”

“늦다니 무슨 말이냐. 죠셉, 넌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가야 한다. 에드워드와 가족들이 도와 줄거다. 재입학을 위한 시험이 있단다.” 할머니는 손을 들어 죠셉을 가리키며 “죠셉 잘 들어 봐라.”라고 말씀하셨다.

잘 들어보니 피크네 약국 쪽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짚은 그집에서 훔치기는 식은 죽 먹기와 같다고 하지 않았던가! 죠셉은 눈을 꼭 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재앙의 손길이 그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가!

“내 옆에 잠깐 앉아 주련.”

“그럼요 할머니.”

그는 할머니 바로 옆에 앉았다. 이제 그는 가장이 된 것이다. 할머니가 잠이 드시자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렸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가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문은 열어 두었다. 할머니가 자기를 필요로 하실 때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의 영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웃음을 머금은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염려마세요. 전 지금 집에 돌아와 있어요.” ○



## 울 밖에 양들

선교부장단 제1보좌 이 호남

●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으로 매일 생활을 즐기시기를 빕니다. 지난 2월은 한국 선교부 4개 지방부 대회를 맞이하여 참으로 많은 영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의 강한 간증, 특히 신앙을 생활화하고 있는 회원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번 대회의 역원 및 신권 대회를 통하여 부라운 선교부장님께서 교리적인 개종과 사교적인 개종에 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가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구도자가 선교사님과 교리를 공부하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진리라고 확신하여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됩니다. 회원이 된 그 형제나 자매는 다음 주일에 소속 지부에 가서 자기 복음의 가족들과 만나 기쁨을 나누고자 하나 회원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은 멀고, 인자한 얼굴은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주장하여 가르쳤던 사랑의 종교, 사랑의 교회, 복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란 한낱 아름다운 낱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실망을 하나 용기를 내고 다시 교회에 출석을 해도 형제와 자매들의 대함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일이 몇번 거듭될 경우 그 새로운 회원은 울 밖에 있는 양 모양으로 울 안에 있는 양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슬퍼합니다.

교회는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병자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교회는 길 잃은 나그네들의 쉼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형제 자매가 됨은 한 가족이 됨을 뜻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교리적인 면에서 개종이 되고 이를 확신한다 할지라도 형제애를 기초로 한 참된 사교와 어울림이 없이는, 그리고 따뜻한 인간 관계의 성립이 없이는 활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며, 자기의 신앙을 발전시키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교적인 개종이란 뜻을 잘 이해하고 모든 신회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맞이할 때, 혹 교리적인 면에서 완전한 개종을 얻지 못했던 형제 자매님들도 점차적으로 개종해 나갈 것입니다.

울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며 참으로 복음의 가족이 됨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

누가복음 23 : 26-34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 오를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 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썸”

요한복음 19 : 16-22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 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